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집주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 경남고, 48년 만에 황금사자기 품고 '명문 부흥' 선포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황금사자기 우승 확정 순간 전광열 감독을 행가래를 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개교 80주년 기념식 한달 만에 감격의 전국 제패...동문들 “자부심 절정” 강호들 차례로 격파, 결승서 ‘신예’ 청담고에 ‘관록’으로 7-2 대역전극

### 총동창회야구후원회, 버스 3대 원정 응원전 펼쳐

관련기사 2~5면

경남고가 드디어 황금사자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4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 쾌거이다. 통산 7번째 황금사자기 우승이다. 1974년 우승 이후 1982년, 1984년, 1987년 준우승에 머무르는 등 거의 반세기 층층이 쌓인 ‘우승의 한(恨)’을 씻어냈다. 전국고교야구대회로 치면 2010년 청룡기에 이은 12년 만의 우승이자 통산 18회 우승이다. 전통의 ‘야구 명문’ 명예를 회복했다.

경남중고인은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감격이 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거둔 대감동의 승전보에 전율했다. 명문 경남고의 부흥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경남고는 지난 5월 30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야간경기로 열린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청담고와의 결승전에서 7-2 짜릿한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이날 경기는 중반까지 양팀 에이스들의 탈삼진쇼였다. 경남고 에이스 신영

우는 5이닝 동안 삼진 9개, 청담고 류현곤은 6⅓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았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청담고에 쏠렸다. 경남고 방망이는 사이드암 류현곤의 아웃코스루를 빼지는 제구력에 눌렸다. 5회말에는 신영우가 흔들리면서 내야 에러로 청담고에 2점을 내줬다. 선두타자 헤드샷(머리 맞는 공)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경남고를 향해 미소 지었다. 7회초 경남고의 집중력은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7회초에 5득점했다. 포볼, 안타, 번트 성공으로 주자 2, 3루 상황을 만들고, 청담고 투수 류현곤을 투구수 제한(105개)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게 했다. 경남고는 바뀐 투수에게서 포볼을 얻어 만루 상황에서 적시타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2-2 동점, 또 바뀐 투수에게서 희생플라이로 3-2 역전, 이어서 청담고의 위세를 완전히 꺾은 2타점 적시타로 판세를 5-2로 뒤엎었다.

경남고는 신영우에 이어 사이드암 투수 나운호가 6회말부터 나와 4이닝 3안타 1볼넷 4삼진 무실점의 완벽 투구로 청담고를 제압했다. 경남고의 방망이는 경기 끝까지 불을 뿜었다. 9회초 2득점 추가하며 승부를 7-2로 종결지으면서 황금사자기를 48년 만에 다시 품었다. 나운호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이번 대회 6경기 중 5(4⅓)경기에서 등판,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63의 성적을 거두었다.

경남고는 최우수선수상을 비롯, △우수투수상(박윤성) △수훈상(강민우) △최다타점상(김정민·7점) △최다안타상(조세익·11개) △감독상(전광열) △지도상(김문현 야구부장) △공로상(백영선 교장) 등 모두 8개의 상을 휩쓸었다.

경남고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강호 덕수고를 4-3으로 꺾고 파죽지세로 진군했다. 장안고를 11-1, 덕적고를 10-3으로 누른 뒤 8강에서 우승후보 1순위였던 북일고를 6-3으로 따돌리고 우승 가시권에 들어섰다. 준결승전에

서 선린인터넷고를 8-4로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경남고는 박윤성, 신영우, 나운호의 호투에다 팀타율 0.377이라는 최고의 공격력을 갖췄다. 하위타선 개념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 주장이자 주전포수 김범석은 뛰어난 포구 능력으로 마운드 안전감을 더욱 키웠다. 이번 대회까지 12연승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날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는 버스 3대의 응원단을 구성, 오전에 서울로 향했다. 개별참석을 포함, 90여명의 응원단이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듯 ‘봉다리’와 ‘마!’ 등 신바람 나는 응원전을 펼쳤다. 재경동창회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응원 왔다고 했다. 선수 학부모들도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전을 이어갔다.

한편 경남고 선수단은 다음날인 31일 오후 우승컵과 우승기를 안고 치고고 학교로 개선(凱旋)했다. 감격의 개선행진이었다. 선수단을 기다리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환호하며 이들을 반겼다.

경남고 선수단은 청룡기 대회와 대통령배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의 영광에 도전한다.

## 황금사자기 우승

## 기다렸다 잡은 기회, 집중력 발휘해 승리가(歌) 불렀다



경남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시상식 후 교장 및 교직원과 동문 선배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lt;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gt;

## 결승전 주요 장면

48년 만에 품은 황금사자기. 그날의 감격이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꿈만 같다는 동문이 많다. 경남고와 청담고의 결승전 경기 중 주요 내용을 복귀해 본다. 경남고 명예 부흥의 시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이다.

경기 시작 전 경남고 응원단은 그야말로 대회 출정식과 같은 의식을 가졌다. 이수환(37회) 동문이 이미 선 목소리로 '후라 경고'를 이끌었다. "나가자! 나가자!"를 외치며 응원가1 '걸음걸이가벼이~'가 울려 퍼졌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부산갈매기'가 나왔다. "경고 파이팅!"과 함께 '훈민정음' 응원이 이어졌다.

굵직하고 카랑한 목소리의 구자삼(45회) 동문이 응원단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헤이 경고', 응원가2 '맹호용사'가 터져 나왔다.

<1~4회> 양팀 모두 상대 투수의 구위에 놀려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5회> 경남고는 5회초까지 삼진 10개를 헌납했다. 6번 장수원 유격수 앞 땅볼 아웃, 7번 임성규, 8번 배정운 연속 삼진아웃. 경남고로선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재학생 후배들 7명이 응원석에 도착했다. 힘이 난 응원단은 더 가열찬 응원가를 외쳤다.

하지만 신영우의 구위가 흔들리기 시

작했다. 청담고 선두 9번 타자가 머리 맞는 공으로 쓰러졌다. 타자는 한동안 누워 있다가 1루에 진출했다. 경남고로선 화근이었다. 청담고 1번 타자의 좌전 안타, 2번 삼진, 3번 타자 중견수 앞 안타로 1사 만루 상황. 4번 타자 2루수 앞 땅볼 처리 에러로 더블플레이 찬스 놓친 경남고는 2실점했다. 1루 주자는 3루로 뛰다 아웃. 5번 타자 내야 플라이 아웃.

<6회> 김백권(46회) 동문이 응원단장 바통을 맡았다. '신세대(?)' 응원가에 맞춰 흰머리 날리는 선배들이 울동을 해댔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했다. 응원이 달라졌다.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던 '봉다리'가 나타났다.

경남고 9번 권태인 삼진, 1번 오상택 우익수 플라이 아웃, 2번 강민우 우익수 앞 안타로 1루 진출. 류현곤의 1루 견제가 심하자 경남고의 '마!' 응원이 쏟아졌다. 3번 김정민의 3루수 앞 땅볼 아웃. 류현곤은 투구수를 6회초에 엄청 소진했다. 경남고의 작전이 먹혔다.

6회말 경남고는 사이드암 2학년 나

윤호 투수를 출전시켰다. 차분한 나윤호는 청담고의 타선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청담고 6번 삼진, 7번 중견수 플라이 아웃을 잡고, 8번 타자에 우익수 앞 안타를 내줬지만, 9번 타자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7회> 경남고 대역전 드라마 시작. 경남고 4번 타자의 몸에 맞는 공에 승리의 신은 웃었다. '여우 머리'의 포수 김범석은 류현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를 죽였다. 심리전이었다. 류현곤 입장에서 '이 건 뭐지?' 하는 의아심과 함께 심리적으로 위축케 만들었다.

류현곤은 5번 조세익을 타석에 두고 1루 견제를 해댔다. 경남고 응원석이 들썩이면서 "마!" "마!"가 빗발쳤다. 류현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판에 항의하는 듯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조세익의 안타가 터졌다. 무사 1, 2루에서 6번 장수원의 번트 성공. 1사 주자 2, 3루. 7번 임성규의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류현곤은 규정 투구수 105개를 채우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임성규가 청담고 교체투수 이효민에게 포볼을 얻어 만루가 되었다. 8번 배정운이 좌익수 앞 안타로 1득점을 하면서 경남고의 득점포문은 열렸다. 9번 권태인의 밀어내기 1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만루 찬스는 계속. 청담고는 류현곤의 강판을 가슴 아파해야만 했다. 관록의 경남고는 찬스에 무서운 집중

력을 발휘했다.

청담고는 다시 투수를 교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번 오상택은 가볍게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득점. 3-2로 역전하며 2사 주자 1, 3루 상황이 됐다. 1루 주자 도루 성공. 2번 강민우가 1루수 옆을 빠지는 우전 적시타를 날려 주자 둘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5-2 대역전. 3번 김정민 땅볼 아웃.

7회말 청담고는 1사 상황에서 안타 1개를 쳤지만, 중견수 플라이, 도루 실패로 사기가 꺾였다.

<8회> 양팀 공격 찬스는 만들었으나 후속타 불발이었다.

<9회> 경남고의 타격은 가벼웠다. 선두 7번 타자 임성규가 3루 베이스를 스치며 2루타를 쳤다. 8번 배정운은 타석에서 청담고의 피쳐보크. 배정운 3루 땅볼 아웃. 9번 권태인의 1, 2루 간을 뚫는 적시타. 썩기를 박았다. 스코어는 6-2로 벌어졌다. 응원석에서 '잘 가세요'라는 노래가 나왔다. 이어서 2사 1, 3루 상황에서 3번 김정민이 우측 담장을 맞고 나오는 1타점 적시 2루타. 1점을 더했다.

청담고 마지막 공격. 9번 삼진, 1번 교체선수 삼진, 2번 유격수 땅볼 아웃. 대역전의 드라마는 끝났다. 경남고 선수들이 마운드로 달려나가 열싸안고 포효했다. 더그아웃 앞에서 1열로 도열, 코칭스태프에 인사하고 교가를 우렁차게 불렀다.

## 황금사자기 결승전 이모저모

## "개교 80주년에 맞은 우승 기쁨"

○...결승전 경기가 종료되자 더그아웃에서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가진 지 1개월 만에 전국야구대회 우승의 감격을 안게 돼 너무 기쁘다. 선수들이 고맙고도 자랑스럽다.

동문 선배들의 정성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방금 정대호 전 교장선생님이 축하의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 "나를 믿고 자신감 있게 투구"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나윤호는 "내가 MVP가 될 줄은 몰랐다. 꿈같다. 지고 있었기에 점수를 안주

면 역전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나를 믿고 자신감 있게 투구했다"면서 "포수 김범석 형이 든든하게 받아줘 마음 편히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승전에서 청담고를 2점으로 막고 잘 버텨준 신영우는 "열심히 한 노력이 성적으로 나와 고마울 따름이다. (프로야구) 지명에 상관없이 (고교에서) 이루

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훈상 강민우(유격수)는 "경기를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확실히 나오는 것 같다. 팀원끼리 뽀푼 뽀푼 해서 잘 해왔다"면서, 자신에 대해 "키는 작지만, 멀리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치는 건 자신 있다"고 강한 자긍심을 표출했다. <기사 3면에 넘김>

# 야구후원회 “효과 톡톡”...더 탄탄한 조직 필요

##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의 과제

경남고의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48년 만의 우승을 두고 많은 이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야구부, 학교, 동창회, 그리고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각자의 입장에서 성과를 진단하고 있다. 총동창회 입장에서 이번 대회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진단해 보고, 향후 대응 자세를 짚어본다.

전광열(44회) 감독은 승리 후 “전국 대회 우승에 대한 동문들의 갈증이 컸다. 응원도 열심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우승 요인 중에 동문의 지원을 말한 것이다.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은 “동문들의 바람이 한 데 모아진 결과”라고 단언했다. 총동창회와 동문들이 보인 그동안의 지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이다.

몇 해 전 일부에서 감독 교체를 추진했다가 공개토론회 자리서 무산된 적이 있다. 총동창회가 막아냈다. 감독을 흔들려는 어떤 기도도 배제되어야 한다. 안정된 선수훈련과 기량 향상에 직

결되기 때문이다. 동문들의 바람은 다름 아닌 ‘기(氣)’이다. 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라는 평가이다.

토론회 이후 새롭게 정비된 경야회 회원의 노력으로 야구후원회가 재출범했다. 회장으로 선임된 유재진(22회·스타자동차 회장) 동문은 화합의 가치를 내걸며 재경 동문들까지 회원으로 끌어들이었다.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는 지원처에서 야구부의 사기를 더 높이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셈이다.

각 기수 및 개인의 기부 또한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구본능(21회·희성그룹 회장) 동문은 모교 운동장 나이트 시설

및 세탁기 교체 등 꾸준히 모교 야구부 사랑을 해오고 있다.

학교에서도 운동장의 천연인조잔디 교체, 안전 야외펜스 설치 등 야구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47회) 동문이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가 창설되었으며, 국민야구해설가 허구연(24회) 동문이 KBO 총재에 선임 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샘솟은 기가 전해졌다.

이 같은 기가 원동력이 되어 야구부 코칭스태프의 철저한 선수 지도와 관리가 진행되었고, 선수들 기량 향상과 결집력으로 승화되었다. 황금사자기 우승은 이런 노력과 정성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동창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야구후원회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보다 풍부한 자금력이라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야구후원회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구하려면, 지금의 조직과 체계를 보다 전문화·체계화하고 후원금 조달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모교 야구부의 지원 대상에 대한 현황 실태팀과 또 다른 지원처인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 인사가 포함된 지원 사항 논의 및 결정 조직, 그리고 집행부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후원회의 생명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후원금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역시 신뢰성 확보에 절대적 요소이다.

또한 모금 방식이 연 단위 1회 모금이 아닌 월 단위 자동이체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후원회의 법인화를 모색, 소액다수의 회원 십시일반 모금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재출범 초기인 야구후원회가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선 동문 각계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금사자기 우승이라는 48년 만의 쾌거는 ‘전통 명문 경남고의 부흥’을 알리는 뜻있는 계기라고 한다. 그 중심에 야구후원회가 있다. 동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선수들, 단합된 응집력으로 경기 즐겼다”

## 전광열(44회) 경남고야구부 감독 인터뷰

“선수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준비했다. 주장 김범석을 비롯,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코치들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선수들이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 우승에 큰 힘이 되었다.”

48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 영예를 안은 경남고 야구부 전광열(44회) 감독은 경기 후 소감을 말하며, 공(功)을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돌렸다.

동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전국대회 우승에 대한 동문들의 갈증이 컸다. 응원도 열심히 해주었다.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뭉쳐졌고, 또 열심히 해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교 80주년 맞아 우승해 더 기쁘다.”

전 감독은 “나 역시 전국대회 우승은 처음이라 무척 기쁘다. 우리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이다. 경기 전 선수들에게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즐기면서 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시합에 임



전광열 경남고 야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경남고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했던 자세를 전했다. 이번 대회 우승 비결에 대해 전 감독은 “선수들의 단합된 응집력 덕분이다. 동문 선배와 학부모들의 응

원도 우려했다. 선수들이 경남고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게 되었고, 책임감도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후반인 7회에 대역전극을 벌인 데 대해 전 감독은 “0-2로 뒤지고 있어도 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다. 상대 선발투수를 공략 못했지만, 후반에 충분히 좋은 찬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기회가 온 것을 잘 살린 게 주효했다. 경기 초반 지고 있었지만, 잘 버텼다. 선발투수 신영우가 기복이 있긴 한데 기대하고 예상한 만큼 잘 막아주었다”고 말했다.

전 감독은 특별히 주장 김범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범석이 너무 잘해줘 미안할 정도였다. 선수들끼리 믿음,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도 강하다. 그동안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범석이의 가치를 이번 대회를 통해 알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대회에 대해서도 전 감독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 감독은 1996년 모교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 길을 걷다가, 2014년부터 사령탑을 맡아 왔다. 모교 야구부 출신인 전 감독의 생애는 오직 경남고 야구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기사 2면에서 받음>

최다타점상 김정민은 “체격에 비해 장타를 잘 친다. 회전력과 손목 힘이 좋았다”면서 외야수로서 펑고 받기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과 단짝인 김정민은 “범석이가 착하고 동기들 잘 챙겨 밥 많이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다안타상 조세익(지명타자)은 “이번 경기부터 팔을 살짝 내리고 치는데,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았다. 운도 따랐다. 올 시즌 끝까지 열심히 하고, 2학년에게 내년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니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7회초 몸에 맞는 공으로 경기 흐름 반전의 시작점을 만든 주장 김범석은 “청

담고 류현곤이 나의 눈빛에 흔들린 모양이다. 나름의 작전이었다. 선배님들이 와서 응원해 주니 힘이 났고, 역전의 바탕이 되었다”면서 “감독님이 희생과 팀워크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씀 따라 팀을 생각해서 한 게임씩 나가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게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전광열 감독 행가래 5번이나

○...이날 시상식 후 전광열 감독은 5차례의 행가래를 가졌다. 앞서 두 번은 언론의 사진 촬영 준비가 안 돼 무효가 되었던 것.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이하 고문)과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행가래도 있었다.

<기사 4면에 넘김>

### 황금사자기 우승

# “승리 신의 사자여 씩씩하도다… 보아라, 우리의 의기를”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동문 응원단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황금사자기 우승을 확정 짓자 마운드에 올라 함께 환호하고 있다.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마운드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경기 시작 전 전의를 다지는 모습.



황금사자기 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전광열 감독을 헝가레 치는 동안 김대욱 총동창회장과 박종찬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이 삼폐인을 터뜨리고 있다.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이 학부모와 동문 선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사 3면에서 받음>

#### 정신 동문, 기쁨의 눈물 흘려

○…이날 경기 종료 순간 응원석의 동문들은 얼싸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신(47회) 동문은 더그아웃으로 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대(代)를 이은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으로서는 ‘부산 야구 부흥’에 강한 책임의식을 느꼈던 정 동문으로선 이번 우승이 엄청난 감동과 함께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응원단 “후배들 덕분에 서울 야유회”**  
○…이번 결승전을 맞아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는 공동으로 응원단을 결성하

고 비용도 공동부담기로 했다. 신룡회(회장 오문세·35회)가 음료수 등을 지원했다. 출발지 동래역에서 대절버스 3대에 모두 43명이 탑승했다. 식당에서 20여명, 경기장에서 30여명이 합류, 90여명의 응원단을 구성했다. 재경총동창회는 따로 모여 응원했다.

1호차에는 김대욱 총동창회장을 비롯, 선배 기수가 탑승. 김 총동창회장은 “후배들 덕분에 서울 야유회 간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즐겨 달라”고 말했다.

이번 응원단에서 최고참 하영일(18회)은 사동문은 “감개무량하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꼭 우승해주면 좋겠다”면서 자신이 교사로서 재직 중 겪었던 역대

전국대회 결승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재학생들의 응원 불참을 아쉬워했다. 동기생 김기승 동문은 “(후배들의 결승 진출이) 반갑고 고맙다. 많은 추억을 담아가려고 역부로 왔다”면서 연신 고마워했다.

이 자리서 3명의 지구동창회장이 노래 경연을 벌여 각 10만원씩의 협찬금을 내놓았다. 이 협찬금은 저녁식사비에 지원됐다. 이날 점심식사는 낙동강구미휴게소에서 했다. 1차로 삼국유사휴게소에 들렀더니 식당이 가스 고장이라 곧장 기수를 돌려 30km를 더 달렸다. 응원단 점심식사는 박 고문이 협찬했다. 식사후 박 고문은 이번 결승전 전망과 진출 배경

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 흰색 응원티셔츠 입고 갈비탕 식사

○…응원단이 서울 식당에 도착하자 개별 참석 동문들이 합류했다. 곧바로 흰색 갈의 응원티셔츠를 배포하고 전원 갈비탕으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김 총동창회장이 식사비를 협찬했다. 200장 중 남은 응원티셔츠를 재경 동문 등에도 배포기로 했다.

**경남고 응원단, 전통이 뭔지 보여줘**  
○…이날 야구장에는 두 학교를 합쳐 약 1,000명의 응원 관중이 몰렸다.

<기사 5면에 넘김>

### 황금사자기 우승



①부산에서 서울로 온 원정 응원단이 흰색 응원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다. ②경남고 득점 순간 목이 터져라 환호하는 응원단. ③응원석 상단에서 바라본 응원단 모습. ④재경동창회 하창우(27회) 회장이 경남고 응원석에서 김대욱 총동창회장, 박종찬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응원하고 있다. ⑤이색 팻말을 목에 걸고 응원하는 김경모(56회) 동문. ⑥경남고 재학생이 응원하는 모습. ⑦박상국(33회) 동문이 서울 거주 딸 가족과 함께 응원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서울 원정 응원단, 즐거운 해단식 가져

### 박종찬 고문, 거액 식사비 쾌척

황금사자기 결승전 응원단 해단식이 지난 6월 1일 오후 사상역 인근 야끼짬(조중완 동문 운영·54회)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해단식에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이하 고문)을 비롯, 하영일(18회) 동문은사 등 응원 참여 동문 30여명이 모였다.

박 고문은 모교 야구부의 쾌거를 다시 축하하면서 야구후원회서 코칭스태프에 1천만원의 축하금 지원 결정을 발표했다. 박 고문은 또 개인적으로 전광열

(44회) 감독의 부인을 위한 '깜짝선물'을 전하며 내용물은 비밀에 부쳤다. 또 일간지 광고와 관련, 부산일보 광고비



는 유재진(22회) 야구후원회 회장이, 동아일보 광고비는 김 총동창회장과 박고문이 3:2 비율로 내기로 했음을 알렸다. 이 자리에 나온 전 감독은 "동문으로서 같이 축하하고 싶다. 첫 메이저대회

라 많이 부끄러웠다. 반성도 했다. 책임감이 더 크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은사동문은 전 감독에게 개인 금일봉을 전하고, 총동창회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참석자 여러 동문이 축하의 말과 자부심 고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서 응원 시 참여 동기수 24명의 50회에게 박 고문이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응원가 1 '걸음걸이 가벼이~'로 끝을 맺었다. 해단식 식사경비 230여만원은 박 고문의 개인 협찬으로 지급되었다.

<기사 4면에서 받음>

창단 6년 만에 결승 진출한 신예 청담고 응원단도 열심히 응원했지만, 전통의 경남고 응원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모교 응원단은 응원가 1, 2에다 다양한 가요의 개사곡과 몸짓, 거기다 롯데 자이언츠 응원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 내내 신바람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50회는 부산과 재경 동기 24명이 참석, 대단한 결속력을 나타내며 후반 응원전을 이끌어 갔다. 이 자리에 재학생 9명이 합류, 힘을 보탤다. 이들은 몸 아프다고 조퇴해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 박 고문, 최웅남(33회), 허부남(37회) 등 여러 동문들이 지갑을 열어 이들에게 격

려금을 전달했다. 이들 중 2명은 학부모 버스편으로, 나머지는 동문 응원단 차편으로 귀향했다.

### '아가 입원' 이색 팻말 걸고 응원

○...6월 3일 창립총회를 갖는 56회 사무국장 김경모 동문은 '우리 아 병원 입원/병원 안 가고 야구장!/경남고 우승 가자/우승 못하면 집에 못 드(들어)간다'는 팻말을 목에 걸고 응원, 눈길을 끌었다.

### "대통령배도 우승 한 번 하자"

○...응원단 귀향길은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버스 커튼은 내렸다. 하영일은 은사동문

은 "포수(김범석)가 빠지는 공 너무 잘 잡아 쥐승리 요인이 됐다. 경고는 우승 안 하면 지고, 청담고는 저도 이기는 경기였다"면서 후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고문은 "오늘 너무 좋다. 오래 기다렸던 황금사자기 우승했다. 그랜드슬램을 위해 대통령배도 우승 한 번 하자"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응원티셔츠는 가져가서 다음에 또 입고 올라가자"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번 경사는 동문들의 바람이 집약된 것이다. 이런 학교 없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김태호(38회) 동문이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신기(神氣)가 있다. 모두 고생했다. 편안한 마음에서

한 잔 하자"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갑 열 일이 걱정"이라면 서 특유의 너털웃음을 웃고, 조만간 선수단 초청 연회를 노상우(24회) 동문의 부산시티호텔에서 갖겠다고 발표했다.

스포TV에서 이날 결승전을 녹화 방영했다. 버스에서 탑승자 전원이 경기 전반을 시청하고 이날의 감격을 다시 확인했다.

### SSG 한유섬 동문, 더그아웃 찾아 격려

○...이날 경기 전 경남고 출신 프로야구 선수 SSG 한유섬(62회) 동문이 스타벅스 음료 50여 잔을 들고 모교 더그아웃을 찾아 응원했다.

# 찬란한 80년 역사 기억되고, 도도히 흘러온 그 정신 가슴에 물결치다



경남중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경남중·고 개교 80주년 기념식 거행... ‘모교사’ 봉정, 숙원 풀어 김대옥 총동창회장 “도전·열정·공헌·박애의 역사, 이제 새 미래 그리자”

### 자부심·감격으로 응축된 축제 한마당...100년 역사 문 향해 도약 다짐

총동창회 주관 기념식, 경남고 체육관에 동문 등 400여명 참석

관련기사 7~14면

1942년 4월 30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80개 성상(星霜)의 세월과 시간이 매듭지어졌다. 자부심과 감격으로 응축된 축제의 한마당이 연출됐다.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렸고, 단단한 쇠와 같이 닳리고 닳린’ 6만9천여 경남중고인(人)이 쌓아 이룬 찬란한 80년 역사가 기억되고, 도도히 흘러온 그 정신이 가슴에 물결쳤다. 앞으로 20년, 2042년 4월 30일까지 모두 100년 시간의 문을 향해 다짐했다. 다시 도전하고, 열정을 쏟으며, 공헌하여 이 날의 영광을 지속하자고.<기념식 상보 8면 게재>

지난 4월 30일 경남고 체육관에서 ‘경남중·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동문 280명, 경남중·고교 교직원 및 재학생(등록) 50여명, 자발적 참여 재학생(100여명), 학부모 등 400여명의 인원이 모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4월의 끝자락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를 앞둔 ‘극복의 시점’이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모교 80년사 봉정식, 3부 기념식수 순으로 치러졌다.

이날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 개교 80주년 오늘은 정



모교 80년사 봉정식이 가제본 상태에서 열렸다.

말 자랑스럽고 기쁜 날이다. 그동안 경남중고인은 도전정신으로, 열정으로, 공헌정신으로 시대요청에 부응해 왔으며, 박애정신의 아이콘 이태석 신부를 배출했다”고 말하고 “경남중고 80년사 출간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역설했다.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개교 80년의 금자탑을 세우는 날이다. 최고의 인재산실이자 최고의 명문으로 우뚝 섰다”고 말하고 “20년 후 개교 100년 되는 날에도 자랑스럽게 축복하자. 경남중고여 영원하라!”고 외쳤다.

1부 행사 기념식(사회:류명석 기념식 집행위원장·31회)은 색소폰 연주의 오프닝 세레모니와 경남중·고 교기 및

총동창회기 입장, 손부홍(15회) 동문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자 소개가 진행됐다.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참석 주요 인물 소개에 이어 기수 순으로 동문 참석자가 소개되었다. 동문 참석자는 4회 졸업생 심석택, 양중학 동문부터 69회 졸업생 조성호 동문까지 모두 280명이었다. 65개 기수 차이로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경남중고인의 자부심’으로 가득찬 모습이였다.

이어서 김 총동창회장이 기념품(텀블러, 최고급 타월 2장, 3단 우산)을 경남중고 교장에게 전달했다.

계속해서 특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재학생 장학금 수여(용마장학회) △동문자녀 상금 수여(△4자녀 동문 상금 수여(총동창회) △직계가족 4

형제 이상 동문 상금 수여(△) △모교 교직원 경력교사(교장) 감사패 및 상금 수여(△)가 있었다.<명단 10면 게재>

이 자리서 경남고 조영택 교사와 경남중 최미옥(대리 수상) 교사가 공로패를 김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남고 백영선, 경남중 김미정 교장이 각각 경남중고 개교 80주년을 축하하고, 나아가 학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했다. 박흥준 부산시장은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축하떡케이크 커팅에 이어 경남고 합창단과 용마코러스의 축하공연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2부 모교 80년사 봉정식(사회:박종기 80년사편집위원·28회)은 러닝 타임 9분의 경남중고 80년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모교 역사 80년을 아우르는 최초의 영상물로 제작 되었다.

모교 80년사 경과보고가 있었다. 박종기 사회자가 총 11쪽의 PP자료를 설명했다. 1971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상황이 소상히 소개되었다.

이어서 이날의 하이라이트 모교 80년사 봉정식이 열렸다.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이 모교 양 교장에게 모교사와 동창회사 가제본을 전달했다. 이로써 50년 전부터 시도하다 좌초되었던 숙원사업, 모교사 편찬작업이 끝을 보게 되었다.

교가 제창으로 2부 행사가 막을 내렸다. <기사 7면에 넘김>

#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 자긍심 충만...“새 역사의 주역 되자”

## 백영선 경남고 교장 “비전이 인생의 나침반 되고 현실 되도록” 김미정 경남중 교장 “새 역사 맡아갈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 경남중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총동창회장 등 동문 다수 참석

모교 경남고와 경남중은 개교 80주년 생일날 하루 전인 지난 4월 29일(금요일-등교일) 교내에서 각각 기념식을 갖고 영광된 100년 역사를 만들기 위해 웅비(雄飛)할 것을 다짐했다.

개교 80주년이란 역사적 시간을 직접 체험하게 된 양교 재학생은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이란 사실을 환기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야망을 품는 계기를 맞았다.

○...경남고는 이날 오후 2시 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전교생이 한 자리 모인 것은 실로 3년 만의 일이다.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학교 측에선 백영선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박근태(39회) 학교운영위원장, 정운경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현웅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류명석(31회) 개교 80주년기념식 집행위원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 김태호(38회) 일반위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백창봉(41회) 이동주(55회) 개교 80주년기념식 집행위원 등 여러 동문이 참석했다. 재경동창회에서도 하창우(27회) 회장을 비롯해 구본홍(20회) 열전위원회 위원장, 박승준(27회) 용마회보 편집인, 이민부(이상 27회) 80년사 편집위원, 심재구(31회) 재경동창회 사무총장, 정아준(33회) 손공(38회) 80년사 편집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영상으로 보는 80년사, 학교장 기념사, 축사, 기



경남고 개교 80주년 기념식 모습.



경남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물 속의 안용백 교장 모습(사진 위)과 덕형관 건축 현장 모습.



경남중 개교 80주년 기념식 모습.



경남고에서 김대욱 총동창회장(사진 위), 경남중에서 이요섭(27회) 80년사 편집위원(사진 아래)이 각각 기념품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다.

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백 경남고 교장은 기념사에서 “선배들이 일군 영광된 80년 역사를 넘어 이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고인”이란 비전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자. 오늘 이 자리가 영광된 100년 역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학교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고1 때가 1982년이였다. 40년 만에 개교 축사를 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면서 “학업증진과 함께 좋은 인성을 길러 잘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자. 경고인은 정말 남다르다. 경고는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모교는 각계각층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개교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유구한 모교의 역사를 담은 ‘경남중고 80년사’가 편찬된다. 크게 기뻐할 일이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재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감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경남

중고인을 배출하는 모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재경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재학생 후배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세웠으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이 백 교장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기념품은 총동창회가 마련한 텀블러와 최고급 타월 2장, 재경동창회가 준비한 3단 우산이다. ○...경남중은 이날 오전 9시 강당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강당에는 3학년만 참석하고, 1·2학년은 교실에서 방송을 통해 기념식을 치렀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은 기념사에서 “선배동문이 쌓아온 업적과 삶의 기록, 발자취는 후배들에게 성공하는 삶의 보물지도이자 지침서”라면서 “새롭게 펼쳐질 역사의 한 자락을 훌륭히 새겨나갈 수 있는 따뜻한 품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경남중 제22대 교장을 역임한 이요섭(27회) 80년사 편집위원이 기념식에 참석, 김 총

동창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모교에서 2013~2015년 교장직을 수행한 이 편집위원은 남다른 애교심과 재학생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 편집위원은 평소에도 “재학생들이 있기에 모교의 80주년 기념식도 가능하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자랑스럽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술한 훌륭한 선배들이 울타리가 되고 있으니, 경남중학생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본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재학생들이 끈기와 집념으로 원대한 꿈을 실현 시켜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 편집위원은 이 자리서 총동창회가 마련한 기념품(텀블러와 최고급 타월 2장)을 전달했다.

#### <기사 6면에서 받음>

3부 기념식수는 경남고 본관 앞 화단에서 치러졌다. 조경용 소나무였다.

한편 이날 이희문(6회·전 경남고 교장), 김형오(20회·전 국회의원), 조경태(40회·국회의원) 동문이 축전을 보내왔다. 개성고, 동래고, 동아고 총동창회와 재경 용마합창단, 박상호(26회·신태양건설 회장) 동문이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이 자리서 허경도 15회 재경동기회장이 개교 8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에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 “80개 성상 위 찬란한 금자탑”...6만여 동문의 영광에 감동, 또 감동!

## 개교 80주년 기념식 상보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감동이었다. 모교 80년사 봉정식으로 기쁨이 배가됐다.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라는 교가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지난 80년 세월동안 도전하며 전진해와 이제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다. 오늘 우리가 모교 개교 8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더욱 감격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남중고인이 이룬 성취와 영광의 바탕 위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고 미래의 동문들이 더 빛나고 더 영광된 영원불멸의 탑을 세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원대한 꿈을 갖게 된 때문이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열린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은 행사 준비기간이 2개월이 채 못 되었지만, 행사준비 추진위원회(3월 7일 발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거의 완벽한 진행으로 기념식이 치러졌다. 예산 모금과 행사 세부 진행계획 등 만만찮은 난관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극복하였고, 동문들의 성원 또한 밀물처럼 쇄도했다.

모교 80년사 편찬위원들, 기념식을 기획하고 준비한 동문들, 협찬 동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한 동문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들이다. 이들이 만든 감동의 축제 주요 장면들을 소개한다.

## 1부

### 참석자 소개

기념식 행사 주최인 총동창회의 김대욱(29회) 회장을 비롯,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장, 백영선 경남고 교장,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먼저 소개됐다. 이어 경남고와 경남중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차례로 거명됐다. 경남중고 재학생들이 단체로 인사를 올렸다. 이들에게는 총동창회에서 2만원의 문화상품권 선물(하종건 47회 경남고 교사 제의 수용)이 전달됐다.

참석 동문 소개가 이어졌다. 4회 양중학 동기회장, 5회 진도영 동문, 8회 장혁표 용마장학회 이사를 비롯, 막내 69회 조성호 동문까지 이날 참석자 모두의 이름이 거명됐다. 각 기수별로 배치된 자리에서 단체로 인사했다. 15회 동기회는 지난해 갖지 못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이날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15회는 이날 행사에 재경동기회 동문을 포함, 모두 16명이 모여, 최다 참석을 기록했다. <명단 11면 게재>

### 기념품 전달

김 총동창회장이 경남중고 교장에게



▲총동창회 주최로 경남고 체육관에서 거행된 개교 80주년 기념식 국민의례 순서 장면.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 본관 앞에서 기념식수하는 모습.

교직원 및 재학생을 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기념품은 최고급 타월 2장과 코로나시대용 텀블러, 그리고 재경동창회에서 마련한 3단 우산이다.

이날 참석 동문 기념품은 각자 배치된 좌석에 미리 놓아두었다. 80주년 기념 엠블럼 우표, 타월 2장, 텀블러, 볼펜 등이 대형 종이가방에 담겼다.

### 특별상 및 공로패 수여

특별상 중 재학생 및 동문자녀 장학금 수여는 이병찬(23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이, 그 외 시상은 김 총동창회장이 맡았다. 이날 수상대상자는 ‘직계가족 4형제 이상 동문’ 3팀을 제외하고 모두 40명이었다. <명단 10면 게재>

### 동창회장 인사말과 축사

김 총동창회장과 하 재경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백 경남고 교장과 김 경남중 교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 총동창회장 기념사와 양교 교장 축사 전문을 4, 5면에 각각 게재한다.

### 케이크 커팅

축하떡케이크 커팅에는 김 총동창회장, 하 재경동창회장, 백 경남고 교장, 김 경남중 교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 모교 80년사 편찬위원장, 김도형(26

회) 재경동창회 모교 80년사 편찬위원장이 칼을 잡았다. 축하떡케이크는 육한수(46회) 동문이 제작한 떡이다.

### 축하공연

먼저 경남고 합창단이 전해경 교사의 지휘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불렀다. 이어 용마코스(단장 김형수·31회)가 조성빈(47회) 동문의 지휘(반주 박소미)로 ‘힘찬 세상의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roubled Water)’ ‘우정의 노래’를 선사했다.

한편 성악가인 조 동문(바리톤)은 애국가 제창 시 독창으로 불렀고, 2부 교가 제창 지휘도 맡았다.

## 2부

### 영상으로 보는 경남중고 80년사

개교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사진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엮어 만든 영상물이 상영됐다. 최초로 80년 역사를 아우르는 영상물로 러닝타임 9분짜리였다. 2부 행사 사회자 박종기(28회) 80년사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이동주(55회) 동문에 의뢰해 제작했다. 희귀 사진과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오자 감탄사가 연이었다. 이 영상물은 계속 자료를 수집해 내용이 보강될 계획이다.

## 모교 80년사 경과보고

모교 80년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11쪽의 PP자료로 만들었다. 사회자가 내용물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자료는 1971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 편찬 진행 과정을 담았다. 모교 80년사의 탄생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작업이었는지를 읽을 수 있다. 박 편찬위원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16회부터 30회까지 편집위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 역사적 사명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모교 80년사가 태어나기까지의 진행 과정 역시 중요한 역사기록으로 추후 보도할 계획이다.

## 모교 80년사 봉정식

이날 최대 중요 행사인 모교사 봉정식은 지난 8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숙원을 드디어 해냈기에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김 총동창회장과 하 재경동창회장이 양교 교장에게 가제본 상태의 학교사와 동창회사를 차례로 전달했다. 학교사는 6월말 출간해 7월부터 동문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전달된다. 봉정식은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 3부

### 기념식수

기념식수는 경남고 본관 계단 옆, 신관쪽 화단에 준비돼 있었다. 김 총동창회장, 하 재경동창회장, 이 용마장학회 이사장, 백 경남고 교장, 김 경남중 교장 등이 기념식수를 맡았다. 나무는 조경용 소나무로 안병규(44회)·(주)승원조경건설 대표) 동문이 선정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개교 80주년 기념사 (전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야에 푸르름이 더해 가는 4월의 끝자락입니다. 경남중·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오늘로서 8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그간 대통령 두 명 등 삼부요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모교는 그 출발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니다. 모교는 1942년 일제치하에서 국민학생을 자녀로 둔 부산지역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민족자본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 재학생들의 자부심이 남달랐을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남중고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방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60년대 4·19, 5·16 등 격변기에는 도전정신으로,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성취를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 민주화 시대에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공헌의 정신으로 이어져 마침내 박애정신의 아이콘이 된 이태석 신부를 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처럼 유구한 모교의 역사를 담은 경남중고 80년사가 출간되게 됨은 참으로 뜻깊은 일대 사건이며, 우리 경남중고인 모두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80년사 편찬 작업을 진두지휘하신 25회 박종찬 고문의 결단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며, 편집위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읽고 있다.

올립니다. 또한 학교사를 담당한 총동창회와 더불어 동창회사를 맡아 노고를 다한 재경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지나간 8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모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난 80년, 모교에 영광된 일이 많았고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자성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 들메끈을 고쳐 메듯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70년대 교육평준화 정책과 더불어 시작된 모교 학력수준의 저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한강이남 제일이라던 모교가 학력만 따지면 이제 삼류고 수준입니다.

모교의 학력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장학금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은 우수한 신입생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모교사랑기금 운동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인지 기대한 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발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력과 더불어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감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녀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나라에 도움이 되고 공헌하는 그런 경남중고인을 배출하는 모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각계각층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헌정신을 높이 돕니다. 사람의 향기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 봉사하는 삶을 사는 제2, 제3의 이태석 신부 같은 후배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계절의 여왕이라는 오월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미래 열 경남중고인의 역량 확인

개교 80주년 기념식 성공적 개최 의미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 행사는 지난 2020년 6월 총동창회관 개관식에 이어 총동창회 주최로 성공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 행사였다. 무엇보다도 총동창회가 지난 50년 동안 숙원이었던 모교사 편찬을 이뤄낸 쾌거가 그 배경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첫째, 총동창회의 무궁한 역량이 확인되었다. 1971년부터 거론되다 좌절했던 모교사 편찬을 오늘의 우리가 기어코 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박종찬(25회) 모교사 편찬위원장의 결단과 추진력, 모교사 편집위원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많은 동문들의 성원이 이뤄낸 쾌거였다.

둘째, 동문 참여의식이 확연히 달라졌다. 숙원이었던 총동창회관 건립을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뤄냈던 그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재출범한 야구 후원회의 순항에서도 느끼는 바이다. 이번 행사의 예산 규모는 8천만원이었다. 실제 협찬액은 1억860만원으로 집



덕형관에 걸린 개교 80주년 기념 대형 걸개.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게되었다. 기념식 집행위원회의 노력도 컸지만, 동문들의 애교심과 동문애가 크게 발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미래는 밝다. 평준화 세대가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집행위원회는 31회부터 55회까지 동문들로 구성됐다. 모금면에서도 평준화 세대의 기여가 컸다. 이들은 결속력과 행동을 겸비했다. 경남중고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 앞날이 든든하다.

이 같은 긍정의 기운을 융합하여 개교

100주년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80년간 이뤄낸 찬란한 역사를 보전하고, 앞으로 20년과 이어질 100년이 영광된 시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대 과제임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재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지원이 절대적 요건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이 있어야 한다. 모교사랑기금 모금이 보다 증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모교 역사관 건립 또한 중요 과제이

다. 모교80년사 편찬으로 역사 기록은 활자로 대할 수 있으나, 술한 역사물 자료는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자료가 훼손되거나 망실(亡失)되고 있다. 모교 역사관은 경남중고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가 동문 형제임을 입증하는 공간이다. 덕형관의 역사관화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업이다. 경남고 교사(校舍) 리모델링 사업 완공 이후(2024년 예상) 우선적으로 덕형관 3, 4층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위대한 사람' 이태석 신부(35회) 동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념사업회와는 별도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된다. 경남중고인의 '큰 자랑'을 세상에 보다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경남고 교정 내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도 시야를 넓혀 외부기관의 참여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그동안 총동창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일부 기수나 동문은 이제 모교와 총동창회의 도약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 어떤 제약이나 조건은 없다. 동문화합과 단결을 위한 결단이 모교 개교 80주년을 보다 기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 백영선 경남고 교장 개교 80주년 축사(전문)

경남중고 개교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남고 22대 공모교장으로선 전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8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동창회원님들의 영광과 가족의 건강을 염원합니다.

경남고 교정 입구에 서면, 교사벽면에 '우리는 자랑스런 慶高人(경고인)'이란 커다란 금속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참사랑을 실천하신 울지마 톤즈 이태석(35회) 신부, 민주화의 거산(巨山) 김영삼(3회) 대통령, 19대 문재인(25회) 대통령, 한국야구의 별 무쇠팔 최동원(31회) 투수 등은 경남고의 자랑스러운 동문들이십니다. 특히 모교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경남중고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 각종 장학회와 후원회 등 수많은 조직과 6만여명의 동문은 용마(龍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80년의 역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문 경남고는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문화재 덕馨館(德馨館)을 정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서 공간혁신 등을 통해 용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미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교 정에 가득찬 편백과 소나무 등 아름다운 숲속에서 자연을, 자유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경남고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라는 비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경남고등학교의 학생은 남달라야 합니다. 선배들의 영광된 역사가 만들어 놓은 용마인이라는 자긍심이 자리잡도록

경남고의 역사를 학습하는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신부 이태석 전기를 읽고 토론하며, 이태석 신부의 날 운영, 추모음악회, 이태석 신부와 연계한 교과수업과 글쓰기를 실시합니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이태석 신부 참사랑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합니다. 또한 성찰의 집과 참전용사비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하는 책임을 다해 열려사는 후배들을 양성하겠습니다. 80년사 편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후배학생들을 위한 경남고의 역사 수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용마인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라는 문구가 평생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경고인의 비전이 80주년을 맞이하여, 영광된 100년의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남중고의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2. 4. 30.  
경남고등학교 학교장 백영선

## 김미정 경남중 교장 개교 80주년 축사(전문)

4월. 화려한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여리고 푸른 잎사귀가 연둣빛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푸르게 물들이는 것처럼, 80년 전 4월, 경남중학교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 눈부신 푸르름으로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지금. 오래되어 쌓이는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이 되색되어 가는 지금. 80년 유구한 역사 속에 담긴 수많은 선배 동문들이 쌓아온 업적과 치열한 삶의 기록과 발자취들은 후배들에게는 성공하는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보물 지도이자 지치고 힘들 때 펼쳐보는 삶의 지침서가 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가슴 벅찬 개교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번 80주년 기념식에서는 '경남중고 80년사 책자' 봉정식과 기념식수 등의 행사를 함께 체험하여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가족이 많이 참석하여, 참석자 한명 한명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경남중고의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고 학생들은 행사를 통해 선배들의 도전, 열정, 공헌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경남중고에 담긴 수많은 역사를 존경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새롭게 펼쳐질 역사의 한 자락을 훌륭히 새겨나갈 수 있는 따뜻한 품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나는 4월, 대한민국을 더욱 따뜻하게 밝히는

경남중학교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100주년, 200주년 기념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영원하라 경남중고!!!  
2022. 4. 30. 경남중학교장(25대) 김미정

김미정 경남중 교장이 4월 30일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발표한 '축하-육행시'를 소개한다.

■ 경남중고 생일 (육행시)

- 경** 경남중고는 경남에 없고 부산에 있는 80년 역사의 명문학교
- 남** 남들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오랜 전통과 훌륭한 동문들의 학교
- 중** 중학생들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 따뜻한 인성과 실력을 신장시키고
- 고** 고등학생들은 미래 비전과 역량을 키워 진로를 위해 매진한다네.
- 생** 생생한 80년 경남중고사 속에 담긴 선배들의 도전! 열정! 공헌!을 이어받아
- 일** 일편단심 모교사랑 80년, 100년, 200년 영원하라~~ 경남중고!!

## ■ 특별상 및 공로패 수상자 명단

**특별상 수상자**

▲재학생 장학금 수여=△경남고등학교-류승재(3-1 전교학생회장) 정원우(3-2 전교학생회 3학년 부회장) 이희찬(3-8 전교학생회 봉사부장) 남인서(2-7 전교학생회 2학년 부회장) 김병민(1-2 전교학생회 1학년 부회장) △경남중학교-강선훈(3-5) 진영훈(3-2) 조민욱(2-4) 조서준(1-4) 최지웅(1-2)

▲동문자녀 상금 수여=△3학년(77회)-공준혁(부친 49회 공태근) 김현성(부친 44회 김병석) 김건우(부친 48회 김태균, 조부 14회 김용호) 박진우(부친 45회 박상조) △2학년(78회)-이영우(부친 48회 이홍석) △1학년(79회)-김민재(부친 43회 김창훈) 조인수(부친 44회 조진현) 김윤석(부친 28회 김홍국)

▲4자녀 동문 상금 수여(고덕체 참석자)=권두성 성열문(이상 38회) 정진훈(39회·베트남) 김정태 최호열(이상 41회) 임대

범(45회) 정우근(49회) 박종현 박병규(이상 50회) 김영권(51회) 황종민(53회) 김경모(56회)

▲직계가족 4형제 이상 동문 상금 수여(고덕체 참석자)=①김승문(17회·말레이시아) 김성진(19회) 김덕진(21회·작고) 김세진(25회·작고) \*사위 서보민(25회) 송재성(28회·작고)

②설광우(18회) 설광석(21회) 설광언(24회) 설광열(30회)-대리수상

③김재민(20회) 김민구(22회·구명 김기

욱) 김도형(26회) 김기정(29회)

▲모교 교직원 경력교사(교장) 감사패 및 상금 수여(고덕체 참석자)=△경남고등학교 교장-이희문(6회) 김봉길(8회) 김성찬(12회) 김중석(24회) 서강태(30회) △경남중학교 교장-주기민(16회) 차동렬(24회) 이요섭(27회)

**공로패 및 상금 수상자**

△경남고 교사 조영택(참석) △경남중 교무부장 최미옥(대리수상)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해단식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동문 성원에 할 수 있다는 자긍심 부풀어

##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해단식

“우리가 해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해단식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면 월강 일식집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안겨준 감격에 고무돼 있었고, 가슴에는 경남중고인의 자긍심이 가득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날 “류명석(31회)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문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면서 “성공을 자축하되 자성하고 성찰할 부분도 쟁겨보자”고 말했다.

류 집행위원장은 “동문들의 성원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경과보고를 했다. 행사 참석인원은 전체 430명(등록 동문 280명, 행사 참여 교직원 및 재학생 50명,

자발적 참여 재학생 100명 추정)으로 파악됐다. 전체 모금액은 1억860만원-개인 182명(7,440만원), 동기회 및 각종 단체 65곳(3,42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출은 8,008만원이다. 잔액 2,851만원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자리서 박종기(28회) 80년사편집위원은 “기념식 2부행사에서 방영된 영상물은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옥동훈(25회) 박종기(28회) 김대욱 현응열 김종명(이상 29회) 류명석(31회) 이용희(34회) 정윤희 최재혁(이상 36회) 권두성 김태호 박정민(이상 38회) 윤원욱(39회) 우영환(40회) 백창봉(41회) 박동식(42회) 안병규 탁정환(44회) 하종건(47회) 정재우(50회).

# 80년사 학교사편 완성본, 6월 30일 출시

편집위원회, 최종 원고 6월 16일 전달...7월 7일 해단식

가제본으로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봉정식을 가졌던 ‘경남중고 80년사’가 드디어 오는 6월 30일에 완성본이 출간된다. 학교사편이다. 총동창회 80년사편집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편집위원회회의를 갖고 마지막 출간 일정을 조율했다.

편집위원회는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월 7일까지 3차 교정본을 제작사인 금성기획으로 보내고, 13일 수정본 접수, 16일 최종 수정원고 전달, 20일 인쇄 작업 돌입, 30일 완성본 택배 도착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사이 편집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를 갖고 의견 교환을 갖기로 했다.

이날 편집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공식적인 해단식을 갖고,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과 노고를 되돌아보고

동문회 숙원을 이뤄낸 쾌거에 대한 자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80년사 집필에 2년여 시간을 올인하다시피한 편집위원들은 현재 거의 모두가 강도 높은 작업 영향으로 득병(得病)했다. 특히 장시간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대하다 보니 척추 이상과 시력 저하가 눈에 띈 정도이다.

박종찬(25회) 80년사 편찬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노고와 업적을 전 동문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고생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적정 원고료 책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80년사 학교사편은 광고 동문, 2022년총원명부 구입자 등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권당 5만원에 판매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모교 80년사편집위원회회의 모습.

## <개교 80주년 기념식 참가동문 명단>

△4회=심석택 양종학(동기회장) △5회=진도영 △8회=장혁표(용마장학회 이사) 최우식 △10회=배길순 이상실 정종만 최병도 △11회=강용대 임상운 천동조 황선홍 △12회=김장욱 △13회=배대결 윤기갑 장영길(동기국장) 정은섭 허훈(재경 동기회 총무) △14회=권명(재경 동기회 총무) 김화옥 △15회=강민조 김기수(재경 동기회총무) 김윤기 김정길(동기국장) 박용 손부홍 손재형 오봉석 윤상준 이의일 임상택 정창용 정창환(동기회장) 최태치 허경도(재경 동기회장) 홍익찬 △16회=김광용 주기민(전 경남중교장) △17회=김용남 박재구(동기국장) 박청홍(동기회장) 하영수(용마산악회 고문) △18회=서부원(동기회장) 오수명(동기국장) 하영일(전 경남고 동문 은사) △19회=김성진 김용엽 △20회=강부덕(자문위원) △21회=공기화 김규 최수명 홍순길(재경 동기회장) △22회=김문무 김형국(전 재경용마코스 단장) 안영수 조홍기(동기국장) 허병도(고문) △23회=김기열(모교80년사편집위원) 김상영(동기국장) 신상희(동기회장) 이병찬(용마장학회 이사장) 홍덕표 △24회=곽두희(자문위원) 김인구(동기국장) 노상우(자문위원) 박규제( ) 안명수 주점권 차동렬(전 경남중교장) △25회=김광돈 김덕우 박광용 박종찬(고문)

박진국 신성찬(통영지역회장) 안희석 여성조(동기국장) 옥동훈(동창회관장) 전섭태(모교80년사편집위원) △26회=김도형(재경 모교80년사편찬위원장) 김태용 박상호(자문위원) 이상원 이영학(중부산지구 회장) 조만석 최의수(동기국장) △27회=이요섭(모교80년사편집위원) 하창우(재경동창회장) △28회=김홍국 박재훈(동기국장) 박종기(자문위원) 백영호( ) 안풍 이영희(전 통영지역 회장) △29회=김대욱(총동창회장) 김영화 김정압(운영위원) 김종명(편집주간) 박봉구(운영위원) 서영학( ) 안정홍( ) 차의수( ) 현응열(총동창회사무총장) △30회=김창모(재경 동기회 총무) 서강태(모교80년사편집위원-전 경남고 교장) 우홍제(동기국장) 정해석(모교80년사편집위원) 최병철(재경 동기회장) △31회=김종규(강서지구 회장) 김형수(용마코스 단장) 류명석(집행위부회장) 박종건 심재구(재경 사무총장) 오민일(집행위부회장) 이병태 장재훈 조성근 △32회=곽영섭 이원천 이종휘(집행위부회장) 이환용 정용수 정현상(용건회 수석부회장) △33회=김기산(통영지역 사무국장) 김법영(집행위부회장) 이동근(용마골프회 회장) 이운조(덕령리그 회장) 정아준 최용남(동기회장) △34회=김동건(재경용마회보편집위원) 이성엽(일반

위부회장) 이용희(회보 편집위원) 이정철 조선(연론인클럽 회장) 조시형(장원지역 사무국장) 최해협 △35회=문영선(재경 동기회 총무) 서석권(용마산악회 회장) 손수범 전상건 △36회=김용진 김중백 김중오 김창일 박관우 이창 정윤희(해운대지구 회장) 최재혁(일반위부회장) △37회=강성욱 김기덕(김해지역 사무국장) 이수환 허부남(동기회장) △38회=강병균(회보편집위원) 권두성(집행위부회장) 김경곤(일반위부회장) 김태호( ) 류인식 박정민(일반위부회장) 손공(재경 모교80년사편집위원) 신동훈(동기회장) 심재민(동기국장) 이수관(강서지구 사무국장) 정재형(집행위부회장) 조수용 조용철(경야회 회장) △39회=김병기(부산진·연제지구 국장) 김중엽(동기국장) 노성수 박근태(집행위부회장) 백기현(일반위부회장) 안승진 윤원욱(총동창회사무국장) △40회=배영진(동기회장) 우영환(집행위부회장) 한수열(남부산지구 사무국장) △41회=강훈(덕령리그 경기이사) 김신욱(동기국장) 김영철(동기회장) 류지섭 문상현 백창봉 성찬기(중부산지구 사무국장) 이양걸(일반위부회장) 최영준(집행위부회장) △42회=강인호 곽창우(동기회장) 김현우 문지성 박동식(경미회 회장) 신봉준(집행위부회장) 안정일 여인환 윤영기 이영도(동기 사무국장) 정홍준(동기국장) △43회=강병규 김대영 박승삼(동기국장)

박형규(일반위부회장) 송대성 오일남 이진배(동기회장) 장병철 △44회=김성준 김항 문형준(동기국장) 안병규(집행위부회장) 조영호 조진현 최현 탁정환(집행위부회장) △45회=권우일(일반위부회장) 김상수 김중현 손창오 이상현 조청래 △46회=김백권 서승진 신정일 육한수 이재광 최원석(동기회장) △47회=김기환(경미회 사무국장) 고달우 배준수 정원 조성빈(용마코스 지휘자) 하종건(경남고 1학년 부장교사) △48회=김태균 이홍석 △49회=김민기 신중국(북부산지구 사무국장) 이충현(용건회 사무국장) 최진영(동기회장) △50회=구민수 구원모 김동현 김석훈 김성학(재경 동기회 총무) 김재호 김정현(동기회장) 노재훈 이종길 정재우(일반위부회장) 최석봉(재경 동기회장) 최용호 황현후 △51회=김영권 손익선(재경 동기회 총무) 신현식(동기국장) 이시원 임용관 정유석(청마회 수석부회장) 최우영(동기회장) 황진혁(재경 동기회장) △52회=김민수 김민철(일반위부회장) 김현진(동기회장) 허근영 △53회=김권우(동기회장) 박한용 우재준 이원준 △54회=고지현 이동하 이찬희 임길환 정준섭(동기국장) 조중완(동기회장) △55회=이동주 이욱한(동기국장) 장지훈(동기회장) △56회=김경모(동기국장) 박재우 장재환(동기회장) △59회=김성수 △62회=한민 △69회=조성호.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화보

#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린 자랑스러운 경남중고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재학생 장학금 수상자들이 이병찬(23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동문자녀 상금 수상자들.



직계가족 4형제 이상 동문 상금 수상자들이 김대옥 총동창회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옥 총동창회장이 4자녀 동문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김대옥 총동창회장이 모교 교직원 경력교사(교장) 감사패 수상자와 나란히 섰다.



김대옥 총동창회장(가운데)이 공로패를 수상한 경남고 조영택 교사(왼쪽)와 경남중 최미옥(대리 수장) 교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개교 80주년 기념품.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15회 동문들.



청마회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46회 동문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50회 동문들이 함께한 모습.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신나는 재학생들.

###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화보

#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낸 경남중·고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뒤에서 바라본 전경.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경남중·고 교장에 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개교 80주년 기념식이 열린 경남고 정문 모습.



◀개교 80주년 기념 축하케이크 자르기.



용마코러스와 경남고 합창단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기 및 동창회기 입장 모습.



용마코러스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축하영상 모습.



경남고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Tel. (051) 253-7788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기대치 이상의 모금액, 기부문화 정착 시사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 협찬금 1억원 돌파 의미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동문들의 협찬금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자 이에 대한 긍정의 반응이 쏟아졌다. 추진위원회는 총예산액을 8,000만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총모금액은 1억8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총동창회는 이를 두고 동문들의 모교와 동문 사랑이 더욱 확대되고, 기부문화가 정착 돼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고무된 분위기이다. 더불어 일간지 광고 참여자를 살펴 보면, 평준화 세대(31회 이후)가 무대의 주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참여자 182명 중 4~30회가 51명으로 28%를 차지했다. 반면 31~39회 67명(37%), 40~79회 64명(35%)으로 평준화 세대가 72%를 기록했다.

30만원 이상 협찬자를 보면, 수적(數的)으로 개인 77명(5,330만원) 중 15~30회가 27명, 31~39회가 30명, 40~55회가 20명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세대가 65%이다. 금액적으로는 15~30회가 2,920만원으로 54.8%를 차지했다. 평준화 이전 세대가 수적으로는 적어도 금액은 과반을 넘었다. 동기회 경우 협찬 동기회 20곳 중 17곳이 평준화 세대이다. 총동창회 산하 단체

협찬금 중 경미회(분과 포함)와 K-청마회의 협찬금이 710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모금에서 평준화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띈 정도로 두드러졌다. 하지만 경제력이 받쳐주는 기존 세대의 지원이 큰일을 도모하는데 절대적이다. 동문 선후배 간의 화합과 단결, 우정과 사랑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동창회는 발전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Table with 3 columns: Individual names, Amount, and Total. Title: 개교80주년 기념 행사 협찬금 (단위 : 만원)

Table with 3 columns: Organization names, Amount, and Total. Title: 협찬금 집계표

개교80주년기념행사일간지박스광고

Table with 4 columns: No., Name, Position, Role. Title: 개교80주년기념행사일간지박스광고

Table with 4 columns: No., Name, Position, Role. Title: 개인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table)

Table with 4 columns: No., Name, Position, Role. Title: 단체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table)

# 1~5회 일제 때 학교 기록물, 일본인 폐기 추정

1946년 학제 개편, 중등학교 6년제·9월 신학기 시작  
1955년부터 7차 교육과정기 거쳐 2015년 현 체제 시행

## ■ 중학교 교육과정 변천

1942년 4월 30일 부산제2공립중학교(경남중학교)가 개교한 이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부분은 학적부가 없어 그 교과목을 찾을 수 없다. <표1>과 같이 조선인 중학교 이수교과목으로 나름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교육의 목표를 국민연성(國民鍊成)에 두고 교육 내용도 교과와 수련(修鍊)으로 나누었다. 교과를 국민과, 이수과(理數科), 체련과(體鍊科), 예능과, 실업과, 외국어과 등 6교과로 세분하여 수업을 하였다.

1회에서 5회 일제강점기 시절의 학교 기록물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폐기하고 갔을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알 수 없어 궁금할 따름이다. 경남고등학교에서 보관 중인 우리 모교 전신인 부산제2공립중학교 1회 졸업생의 생활기록부는 <표2>와 같다.

### 1. 해방 이후 교육

1945년 9월 17일 미군정이 공포한 일 반명령 제4호에 따라 9월 24일 한국인이 다니던 부민국민학교(지금의 부민



<표2> 1회 졸업생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자리) 등 20개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이어 10월 1일 경남중학교(당시 부산제2공립중)도 재개교했다.

경남중학교 1회에서 7회까지 생활기록부는 경남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1951년 경남중·고 분리 후 8회부터의 생활기록부는 경남중학교가 보존 관리하고 있다.



1960년대 영어교과서 표지.

광복 초기 미군정 학무국은 1946년 11월 16일 교수요목제정위원회(教授要目制定委員會)를 설치하여, 교과목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 항목인 교수요목을 제정하고 교과서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

1946년부터 학제가 개편되어 중등학교는 6년제가 되고 교명도 중학교, 여자중학교로 바뀌었다. 학기도 연 2학기라고 하고 9월부터 신학년이 시작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수요목의 제정과 학제의 변경, 그리고 교육법의 공포 등에 따라 교과목 편제도 조금씩 달라졌다.

1943년에 입학한 통산 3회(입학 2기) 생들의 교과목 일람표(1946~1948)를 보면 당시 공부하던 학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세분했다.<표3> 참조.

### 2. 625 전쟁 전후 교육과정 운영

전쟁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은 그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가 군에 징발되어 노천수업, 셋방수업을 하던 시기였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개편,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한 국가고사 등이



1960년대 초 지리교과서 표지.



1963년판 중등말본 표지. 책 사진 자료는 경남중역사관에 보관 중이다.

있었다.

전시하의 우리 교육은 공산군을 섬멸하고 위기에 빠진 국토를 방위하며,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교육실천에 주력했다.

### 3. 49, 516 등이 바탕 된 교육과정 운영 실제

중학교는 제 1차 교육과정기(1955~1962년), 제2차 (1963~1972년), 제3차 (1973~1981년), 제4차 (1982~1987년), 제5차 (1987~1992년), 제6차 (1992~1997년), 제7차 교육과정 등 혁명, 변혁을 거치면서(1998~2009년) 교육과정을 다듬어갔다.

이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는 한 학기 동안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주도 활동과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를 실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 목	1년	2년	3년	4년
국민과(수신,역사,국어,지리)	9	9	10	10
이수과(수학,물상,생물)	8	8	10	10
체련과(교련,체육,무도)	6	6	8	8
예능과(음악,서도,도화,공작)	4	4	3	3
실업과	2	2	2(2)	2(2)
외국어	4	4	(4)	(4)
수련	3	3	3(2)	3(2)

<표1> 1943년 3월 8일 개정된 조선인 중학교 이수교과목.

학과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		체보		외국어		국어(한문)	사회생활	수학	외국어	음악	미술	심리	논리	철학개론	법학개론	경제원론	경제지리	
강독	문작	공민	역사	지리	1류	2류	물리	화학	생물	체육	보건	영													문
4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학년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	체보	외국어	국어(한문)	사회생활	수학	외국어	음악	미술	심리	논리	철학개론	법학개론	경제원론	경제지리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56.67	70.63	55.82	65.11	60.49	59.90	70.83										65			
제5학년	75.85	70	55.69	63.59	70	71.60	60.63										74			
제6학년	86.81	84	52	61	71	62	72										73			

<표3> 3회 생활기록부.



글=이요섭(27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  
원회 편집위원

제24회 용마골프대회

# ‘지난해 준우승’ 아쉬움 날리고 정상 안착 44회

40조 160명 참가...개인전 우승 A조 김재도(33회), B조 김동주(51회) 동문  
부산컨트리클럽서 대회 성료...모처럼 시타단체사진도



제24회 용마골프대회가 열린 부산컨트리클럽 정문 위에 나누는 행사 플래카드.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경기 전 단체사진 촬영행사를 가졌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소박하면서 내실 있게.” 지난 5월 16일(월)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4회 총동창회장배 용마골프대회의 분위기를 요약한 말이다. 지난해 10월 ‘최다 참가, 최다 기수, 최다 협찬’이란 대기록을 세우며 성공리에 개최했던 제23회 대회와는 확연히 다른 ‘차분한 축제’가 이번에 연출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샷건 방식은 아니지만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못 가진, 참가자 일부 동문 단체사진

촬영과 시타 행사도 갖는 등 내용면에서는 알찬 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주관처인 용마골프회 집행부가 지난 3월말 개편 되어 이동근(33회) 신임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지난 4월 30일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막 치른 뒤라 부담감이 컸었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대회를 치러냈다.

이번 대회는 40조 160명이 조별

티오프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이날 오전 11시 첫 조 경기 직전 이 시각까지 골프장에 도착한 동문들은 단체촬영을 갖고, 곧바로 시타행사에 들어갔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이동근(33회) 용마골프회장 그리고 참가자 중 막내 송재혁(72회) 동문 등 3인의 시타로 대회가 개막됐다. 이날 오후 1시 13분까지 조별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종료되었다. 시상식은 경기 당일 갖지 못하고 지난 5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협찬품 행운권 추첨도 있었다.

이번 대회 단체전 1, 2, 3위는 모두 10인 이상의 동문을 출전시킨 팀

이다. 인재가 많다는 의미이다. 우승을 차지한 44회는 10명, 준우승 25회는 11명, 3위 33회는 1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44회는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냈다. 지난해 출전 배봉건 정의석 동문에다 안병규 동문이 합세, 쾌거를 이뤄냈다. 합산스코어가 220점이다.

준우승 25회는 관록의 스타들이 기량을 과시했다. 개인전 A조 메달리스트 송영근 동문과 준우승 박광용 동문이 김종국 동문과 함께 합산스코어 230점을 기록했다. 3위 33회는 개인전 A조 우승을 차지한 김재도 동문의 성과에 박창완, 박용득 동문이 성적을 보탤다. 합산스코어 236점이다.

1~39회 참가 개인전 A조 메달리스트 송영근(25회), 우승 김재도(33회·69.8타), 준우승 김재철(30회), 3위 박광용(25회), 롱기스트 조성각(37회·295m), 니어리스트 박진용(36회·1m) 동문이다.

40회 이후 참가 개인전 B조 메달리스트 배봉건(44회), 우승 김동주(51회·71.2타), 준우승 정재우(50회), 3위 안영재(53회), 롱기스트 김동현(43회·295m), 니어리스트 한수성(44회·1m) 동문이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기념타월과 박종찬(25회) 고문이 협찬(240만원)한 3피스 골프공 1세트와 볼마크 칩 1개씩, 배준수(47회) 동문이 협찬한 골프공과 스포츠 마스크 등이 제공됐다.



제24회 용마골프대회에서 시타 행사가 열리고 있다.

## ■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시상

### 1. 단체전 (기별 참가자 중 BEST SCORE 3명 합산하여 순위 결정)

순위	기수	성명	합산스코어	시상내용	
				시상	상품(골프공)
우승	44	배봉건 안병규 정의석	220	우승기	5 BOX
준우승	25	김종국 박광용 송영근	230	준우승기	3 BOX
3위	33	김재도 박용득 박창완	236	3위기	2 BOX

### 2. 개인전 A조(1~39회)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골프공)
메달리스트	25	송영근	72		트로피	1 BOX
우승	33	김재도	77	69.8	트로피	1 BOX
준우승	30	김재철	88	71.2	트로피	1 BOX
3위	25	박광용	74	71.6	트로피	1 BOX
롱기스트	37	조성각	295	m	트로피	1 BOX
니어리스트	36	박진용	1	m	트로피	1 BOX

### B조(40회 이후)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골프공)
메달리스트	44	배봉건	70		트로피	1 BOX
우승	51	김동주	82	71.2	트로피	1 BOX
준우승	50	정재우	75	71.4	트로피	1 BOX
3위	53	안영재	81	71.4	트로피	1 BOX
롱기스트	43	김동현	295	m	트로피	1 BOX
니어리스트	44	한수성	1	m	트로피	1 BOX



제24회 용마골프대회

# 팬데믹 지나온 회포라 우정도 샷도 들뜨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용마골프대회 이모저모

**송중헌(33회) 동문, 72회 아들과 출전**  
 ○...이번 대회 시타에 참가한 막내 송재혁(72회) 동문은 아버지 송중헌(33회) 동문과 함께 출전했다. 아버지 송동문은 시타행사 내내 야구부 출신으로 흰칠한 꽃미남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 마냥 싱글벙글하며 사진촬영을 주문하기도.

**협찬 골프공 배지에 자긍심 솟아**  
 ○...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된 박종찬(25

회) 고문 협찬 골프공에는 제24회 용마골프대회 배지가 새겨져 있었다. 경기를 하면서도 경남중고인의 자긍심이 샘솟았다는 후문이다. 이 파라볼라 골프공은 47회 정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제이원퓨처스가 생산한 제품이다.

**회보 구독료 징수 못해 아쉬움**  
 ○...연이어서 현장 시상식이 골프장 사정으로 열리지 않았다. 참가비 3만원은 현장에서 환불 조치됐다. 일부 몇 동문은 행사 진행을 돕던 총동창회 사무국 직원에게 환불 참가비를 회식비로 전해

주기도 했다. 지난 대회에서 동창회보 구독료 미납자에게 환불 참가비 대체로 구독료 납부율을 올렸던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이날 구독료 미납자 자료를 챙기지 않아 매우 애석해 했다. 환불 참가비를 일괄적으로 그린피에서 감하겠다는 주관 측의 애초 계획이 골프장 측의 불허로 갑자기 바뀐 탓이다. 이를 두고 한 동문은 동창회보 구독료 미납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지성(知性)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며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33회 13명, 25회 11명, 38회 10명 참가 ○...이번 대회 기수별 참가자 수를 훑어 보면, 어느 기수가 동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올해는 33회가 13명, 25회가 11명, 38회와 44회가 10명, 39회와 45회가 9명, 30회·50회·51회가 각 7명, 23회와 40회가 6명, 31회·32회·42회·43회가 각 5명씩 출전했다.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는 동문이 많다는 것은 격조 있고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삶의 질이 높다. 거명된 기수는 행복한 동기이다.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용마골프대회 시상식 거행

이종운 동문, 라식시술권 행운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

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20여명의 수상자 및 대리수상자가 참석했다. 월말의 금요일이라 일부 수상자가 불참했다. 단체전 시상식에서 우승한 44회 배봉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제 24회 용마골프대회 단체전 시상하고 있다. 사진 상 우측, 중 준우승, 하 3위.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건, 정의석, 안병규 동문 중 배 동문만 참석, 우승기를 받았다. 준우승을 한 25회 김종국, 박광용, 송영근 동문은 모두 참석, 준우승기를 함께 건네받았다. 3위 33회 김재도, 박창완, 박용득 동문은 모두 불참, 동기인 이윤조 윤상현 동문이 대신 상을 수상했다.

개인전 시상에서도 A조 우승 김재도, B조 우승 김동주(51회) 동문이 불참, 동기가 대리수상했다. A, B조 메달리스트인 송영근, 배봉건 두 동문이 그린자켓을 입고 각기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최고 경품인 라식시술권(200만원 상당·36회 박진용 동문 협찬)은 이종운(39회) 동문이 차지했다. 또 삼성냉장고(150만원 상당·33회 박명진 동문 협찬)는 이명건(30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행사 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행운권 당첨자 명단=△라식시술권(200만원 상당) 1장-이종운(39회) △

삼성 냉장고(150만원 상당) 1대-이명건(30회) △벤츠자동차 골프백 3개-안승진(39회) 이광석(45회) 황현후(50회) △시티호텔 숙박권(25만원 상당) 3장-황문찬(32회) 윤상현(33회) 이재등(50회) △삼성기프트상품권(10만) 1장-이종길(50회) △프랑코페라로 순면 티셔츠 5장-전성황(32회) 서석권(35회) 이규진(45회) 정준섭(54회) 장지훈(55회) △프랑코페라로 밀라노 여행용파우치 8개-김대욱(29회) 최우철(30회) 이성훈(32회) 배봉건(44회) 신정일(46회) 권유찬(48회) 임용관(51회) 김민우(58회) △수산물세트 5세트-김재철 서병관(이상 30회) 박동식(42회) 김항 안병규(이상 44회) △이가한우 외식상품권(10만) 5장-장영택(32회) 이성엽(34회) 김원철(38회) 장명재(40회) 정의석(44회) △킹블랙타이거새우메로세트(7만원 상당) 5세트-박종찬(25회) 하순호(39회) 강훈(41회) 남승태(54회) 전민기(55회).



그린자켓의 메달리스트 A조 송영근, B조 배봉건(각 왼쪽) 동문.



용마골프대회 시상 후 참가자 기념사진 모습.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참가 기수 및 후원 현황

기수별 참가신청 인원	15회	0	24회	1	33회	13	42회	5	51회	7
	16회	1	25회	11	34회	1	43회	5	52회	2
	17회	0	26회	3	35회	1	44회	10	53회	4
	18회		27회		36회	1	45회	9	54회	4
	19회	0	28회		37회	4	46회	4	55회	4
	20회		29회	4	38회	10	47회	2	58회	2
	21회	0	30회	7	39회	9	48회	1	72회	1
	22회	1	31회	5	40회	6	49회		신청인원	160
	23회	6	32회	5	41회	4	50회	7	대기	

후원 현황					
현금 후원			물품 찬조		
기수	이름	금액(만원)	기수	이름	내용
16	송규정	100	22	유재진	홀인원 상품 벤츠자동차 1대, 골프백 3개
23	이병찬	50	24	노상우	시티호텔 숙박권(25만원 상당) 3매
25	김익수	50	33	박명진	삼성 냉장고(150만원 상당) 1대
25	김진철	100	36	박진용	라식시술권(200만원 상당) 1매
25	박종찬	240	38	박정민	여행용 폴딩보스톤백 40개
25회	골프회	20	38	신동훈	프랑코페라로 밀라노 여행용파우치 8개
28회	골우회	30			프랑코페라로 순면 티셔츠 5개
29	김대욱	300	40	한수열	삼성기프트상품권(10만) 1매
32	이성훈	30	42	정용중	이가한우 외식상품권(10만) 5매
32	이종휘	100	44	정의석	수산물세트 5세트
33	김법영	30	45	구자삼	킹블랙타이거새우메로세트(7만원 상당) 5세트
33	이동근	200	47	배준수	세인트나인 골프공 3피스 30더즌
33회	골프회	50			골프운동 마스크 180개
37	허부남	50			
38회	경친골프회	20			
40	우영환	100			
44	안병규	100			
50회	동기회	50			
	덕형리그	50			
<b>합 계</b>		<b>1,670</b>			

※ 용마골프대회 협찬 및 참가비 계좌  
부산은행101-2074-0340-04  
경남중고총동창회김대욱

◇용마골프대회 참가자 명단 △16회=송규정 △22회=유재진 △23회=김태용 박인권 이병찬 이부식 이영혼 전상대 △24회=노상우 △25회=김익수 김종국 김진우 김진철 박광용 박종찬 박진국 송영근 안영복 안희석 이명철 △26회=김두천 박장현 조만석 △29회=김대욱 문창건 박봉구 이문열 △30회=김재철 김해곤 박인달 서병관 이명건 최우철 황철민 △31회=공종렬 김종규 안용모 천장호 최봉근 △32회=김형국 이성훈 장영택 전성황 황문찬 △33회=김윤성 김재도 박상국 박용득 박창완 박태중 송종현 윤상현 이동근 이윤조 장정석 주기훈 최웅남 △34회=이성엽 △35회=서석권 △36회=박진용 △37회=장원의 전인수(불참) 정기섭 조성각 △38회=구동주 김경곤 김원철 박준홍 서경형 심재민 이수관 이양배 정재형 한민득 △39회=김규용 김윤홍 김중엽 서은식 안승진 이종욱 이종운 정순환 하순호 △40회=노인철 배병환 안성호 장갑구 장명재 한수열 △41회=강훈 백선민 전삼록 최영준 △42회=곽창우 박동식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43회=강병규 김동헌 박경석 박형규 이진배 △44회=강경호 김항 배봉건 안병규 윤상훈 임정훈 정의석 정종윤 탁정환 한수성 △45회=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정행택 진상영 최상배 △46회=김백권 서승진 신정일 이재광 △47회=김태우(중훈) 배준수 △48회=권유찬 △50회=김동현 김재호 김정현 이재등 이종길 정재우 황현후 △51회=구민석 김동주 이지모 임용관 정유석 최우영 최환석 △52회=김민철 김지운△53회=박성영 안영재 이봉희 황종민 △54회=남승태 손희원 이동준 정준섭 △55회=김현달 장지훈 전민기 한재호 △58회=김민우 양성안 △72회=송재혁



지역지구동창회

# 강서지구 한마음체육대회 “사람 사는 맛” 만끽

“행복을 빛는 동창회 ‘사람 사는 맛을 내는 동창회’라는 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강서지구동창회가 5월의 싱그러운 하늘 아래 확 트인 운동장에서 가족의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 바구니’를 터뜨렸다. 강서지구는 지난 5월 15일 강서구리틀야구단전용구장에서 동문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근래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동문 가족 한마당 축제였다.

이날 강서지구 동문과 배우자 및 자녀, 외빈 등 70여명의 인원이 모여 우렁찬 함성과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마음을 놀이와 웃음으로 깨끗이 치유했다. 방송인 김경진(44회) 동문의 수려한 입담과 재치있는 진행에다 순간 포착 푸짐한 경품(상품권 100여장, 상품 30여 가지)행사 등 그야말로 초(秒)단위로 ‘행복 지뢰’가 터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서리틀야구단 학부모팀과 강서지구동창회야구팀과의 친선야구경기를 치렀다. 이어 강서구리틀야구단 후원행사가 열렸다.

정성스레 준비한 오찬을 즐기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개회선언을 한 강서지구 김종규(31



강서지구동창회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들이 국민체조를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겁게 놀 수 있음에 감사한다. 선후배 동문간 우정을 더욱 다지고, 가족간에는 사랑이 더욱 크게 영글길 바란다”면서 행사 준비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강서지구에 경의를 표한다. 강서지구동창회의 놀라운 에너지가 동문사회에 널리 퍼져 총동창회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함께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조에 이어 김 총동창회장과 김 강서지구 회장의 시축행사가 있었다.

이날 체육대회에 △발야구 △제기차기(여성배우자) △‘너 나와’ 물풍선 퍼포먼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자녀) △OX퀴즈 △족구 △2인3각 릴레이 △박 터뜨리기 등 8가지 경기가 홀수 짝수 기수 청백전으로 진행됐다. 청팀 대역전승.

총동창회는 이날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자 명단=△외부 참석자-김대욱 총동창회장, 현응열 사무총장(이상 29회), 이수환, 허부남 사하지구차기회장(이상 37회), 박정민(38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배우자, 윤원욱 총동창회 사무국장(39회), 강병규(43회), 정유석

(51회), 김권우(53회 동기회장+배우자+자녀2, 조중완(54회 동기회장) △강서지구동창회-김택영(26회·고문), 예영일(28회)+배우자, 조광제(28회), 김종규(31회·회장)+배우자, 이병훈(32회·부회장), 김창범(32회·감사)+배우자, 이환용(32회), 김재성(35회·부회장), 이수관(38회·사무국장)+배우자, 김성준(44회·사무1차장), 이준호(45회·이사)+배우자, 김백권(청년부회장)+배우자+자녀3, 조병노, 이진행(사무2차장)+배우자+자녀1, 박기정(이상 46회), 조형래(이사)+배우자+자녀2, 윤호재(이상 49회)+배우자+자녀1, 구민수(50회·조직차장), 최우영(51회·재무차장)+배우자+자녀1, 오건진(51회), 정상중(52회·기획홍보1차장)+배우자+자녀2, 우재준(기획홍보2차장)+배우자+자녀2, 이응배(이사)+배우자+자녀2, 박성영+배우자+자녀1, 황선경(이상 53회)+배우자+자녀1, 최유성(55회)+배우자+자녀2, 김덕형(66회).

◇찬조=△외부 \*현금-총동창회 30만원, 동래-금정지구 10만원, 해운대지구 10만원, 남부산지구 10만원, 박종찬(25회) 고문 30만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30만원, 허부남(37회) 사하지구차기회장 20만원,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20만원 \*물품=강병규 동문(43회) 생략 3박스 △강서지구동문 \*현금-손부홍(15회) 20만원, 김택영(26회·이상 고문) 50만원, 예영일(28회) 10만원, 김종규(31회·회장) 30만원, 이병훈(부회장) 20만원, 김창범(이상 32회·감사) 10만원, 김재성(35회) 20만원, 정재형(38회·이상 부회장) 20만원, 이진행(2사무차장) 10만원, 김백권(이상 46회·청년부회장) 10만원, 조형래(49회·이사) 20만원, <기사 21면에 넘김>



‘너와 나’ 물풍선 퍼포먼스 장면.



시상품과 경품을 들고 자랑하는 가족들.

## 남부산지구, 활력 찾고 의료특강까지

남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이 2년여 만에 실현됐다. 지난 5월 18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회원 및 총동창회 사무국팀 등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그간 위축되었던 지구 동문 모임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은 전날 덕경회 재출범식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열정적으로 이끈 탓에 목이 잠겨 인사말을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에게 넘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박 고문은 총동창회 근황 소개와 과제 등을 요약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고문은 이 자리서 먼저 “동문회 행사에 가능하면 무조건 참석해달라. 각종 후원이 많아져 선물 챙겨가는 일이 잦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박 고문은 모교 개교80주년 기념식, 제24회 용마골프대회, 야구후원회 결성, 덕경회 재출범, 모교사 편찬 등에 대해 진행과정과 성과 등을 간추려서 전해주었다. 이어 총동창회의 숙제로서 덕형관 역사관과 이태석 신부 추모 미니공원 건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동문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올해 남은 행사, 기별야구대회와 용마의 밤 행사 등에도 변함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박인석(39회) 동문의 의료특강이 있었다. 서면에서 알파신경외과를 운영 중인 박 동문은 이날 뇌동맥류 질환과 대비책 등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남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 단체사진.

제공했다. 어떤 두통이 발생할 때 병원에 가야 하느냐,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치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박 동문은 평소 느끼보지 못한 두통 발생 시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수영(남구 갑) 국회의원이 인사차 들러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 최근 활동 등을 전해 주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박 고문은 30만원을 찬조했다. 이 남부산지구 회장은 썬크림 50개를 협찬했다.

◇참석자(존칭생략·기수순)=이종철(16회) 정량부(17회) 이수(24회) 박종찬(25회) 김용석(28회) 김종명 현응열(이상 29회) 정해석(30회) 이종휘(32회) 박근보 박상국 장정석(이상 33회) 조선(34회) 김정현 정윤희(이상 36회) 김성일 윤태환(이상 37회) 김태성(38회) 박용한 박인석 윤원욱(이상 39회) 김대영 박기엽 배병훈 최신일 한수열(이상 40회) 정용중(42회) 조청래(45회) 감기환(47회) 김석훈(50회) 오성진(51회) 문희규(53회) 고지현(54회) 박찬우 이동규 장지훈(이상 55회).

# 2년 동안 쌓인 '회포 풀기' 대폭발

## 해운대지구 정기모임 60명 참석, 정담 나눠

해운대지구동창회가 지난 4월 28일 (목) 오후 해운대 외식1번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2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 6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만나지 못함을 보상 받는 양 서로 반가운 얼굴로 시종 화기애애한 정담을 나눴다.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모임을 못 가져 무척 지겨웠다. 앞으로는 훌륭한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동창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 좋은 인적 자산을 만들기 바란다”면서 이날 많은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모교 80년사 기념식 준비에 동문 선배들의 참여와 관심, 후원이 기대 이상이다. 행사가 잘 치러질 것 같다”면서 “총동창회 활동 모든 면이 자리를 잡고 가고 나날이 나아져 흐뭇하다. 명문 경

남중고 출신답게 배려와 기부를 통해 모교와 이웃, 지역사회,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동문이 되자”고 말했다.

박종찬(25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야구후원회 모금, 모교 80주년 기념식 준비 모금 등에 참여도가 높다. 동문회의 저력”이라고 말하고, 해운대지구가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연회비 운



해운대지구 동창회가 정기모임을 열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영방식 등을 조연했다.

이날 최고참 기수 13회를 대표하여 윤기갑 동문은 “오랜만에 동문들 얼굴을 대하니 매우 반갑다. 해운대지구는 전통적으로 유대가 깊다. 이 전통을 잘 지켜 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 동문에게 동창회 로고가 박힌 최고급 몽블랑형 볼펜과 막걸리잔이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협찬 내역=△총동창회 30만원 △박

종찬(25회) 고문 30만원 △박종기(28회) 자문위원 20만원 △이성엽(34회) 20만원 △김두섭(34회) 10만원 △권두성(38회) 20만원 △강서지구 10만원 △동래금정지구 10만원 △읍서버 이균태 씨 50만원 △백현성(35회) 동문 막걸리잔 200개

◇참석동문(초청 생략 기수별 무순)=윤기갑 배대결(이상 13회) 김화옥(14회) 전상대(23회) 김인구(24회) 박종찬 박광용(이상 25회) 김태용 조만석(이상 26회) 김대욱 현응열 김종명(이상 29회) 이석희 박진홍 이호일 최용남 박태중 박상국 유인철(이상 33회) 박철웅 손병걸 이재국 문창영 이준권 김중근 최해협 김두섭 이성엽(이상 34회) 정해남 김종태 김익성 마계성 임준민 김형준(이상 35회) 정윤희 김창일 장상욱 오명재 김종구(이상 36회) 박상현(37회) 김태호 김경곤 김태성 박정민 권두성(이상 38회) 윤원욱 김종엽(이상 39회) 박상욱(42회) 허재원(43회) 김형준 조영호(이상 44회) 오유준(50회) 허근영(52회) 전민기 이동균 조호영(이상 55회).

## 김해지역동창회, 연화도 트래킹 다녀와 통영 박정리문학관도 관람, “뜻깊은 봄 야유회”



김해지역동창회가 연화도 트래킹을 다녀왔다.

김해지역동창회가 지난 4월 23일 (토) 통영 연화도 일대에서 봄 트래킹 행사를 가졌다. 귀갓길에 통영 소재 박정리문학관도 관람, 문화기행을 겸한 뜻깊은 야유회가 되었다.

이날 연화도는 4월의 무르익은 봄날 풍경을 선사해 회원들을 매료시켰다. 고등어 회 등 먹거리도 푸짐하게 준비, 참가자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7시 김해시청 앞에서 집결해 출발, 오후 6시에 김해 뒤풀이 장소에 도착, 여흥을 즐겼다. 뒤풀이 때는 5명의 회원이 추가로 참석, 진한 우정을 나누었다.

◇찬조=김춘강(40회) 10만원, 신현식(51회) 10만원, 이남주(40회) 10만원, 황성철(31회) 10만원, 김찬수(38

회) 10만원, 김기덕(37회) 20만원, 정희태(34회) 20만원, 김동욱(30회) 10만원, 손옥명(40회) 10만원, 김영기(23회) 100만원, 이원천(32회) 5만원 △기타물품 찬조=김동욱(30회) 떡 1대, 조광래 중식 제공+옥수수 1박스. ◇참석자=이상운(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29회) 김동욱(30회) 박원곤 이원천(이상 32회) 박명제(33회) 김용진 박형출(이상 36회) 김기덕(37회) 송유석(38회) 이남주(40회) 송대성(43회) 조영호(44회) 이상현(45회) 함상욱(49회) 윤희순(차의수) 황해주 강정애(부산여고 동문) 조광래 \*뒤풀이 참석=박희규 박광수(이상 29회) 정희태(34회) 신동해(35회) 김규선(36회).

<기사 20면에서 받음>  
정상중(52회·기획홍보1차장) 10만원.  
\*물품-이수관(38회·사무국장) 탐마트 상품권(20만원), 김성준(44회·1사무차장) 식수·음료수일체(20만원), 구민수

(50회·조직차장) 황성주 두유 6박스(6만원), 최우영(51회·재무차장) 방역마스크 6박스(30만원), 김덕형(66회) 고급어묵세트5박스+현장시음용 어묵(50만원).



창원지역동창회 상반기 이사회가 열렸다.

## 개교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 의견 일치 창원지역동창회, 모처럼 대면 이사회 개최

창원지역동창회(회장 김정암·29회) 2022년 상반기 이사회가 지난 4월 12일 오후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호텔 중국관 만다린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모임을 거의 갖지 못하다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움츠렸던 모임 활동을 본격 재개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암 회장 선배기수들 위주로 초청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사무국팀이 참여, 행사의 의미를 배가 시켰다.

이날 코로나시국에서 집행부 임기 1년 연장 결정의 경과를 설명한 김정암 회장은 “본의 아니게 3년 임기를 갖게 됐다. 하반기 행사 일정을 잡았다.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면서 “모교 80주년 기념행사에 창원지역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은 “코로나19가 끝나간다. 그동안 활동을 못한 반작용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

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사 규모가 크고 예산 문제로 애로가 있다. 지역 일간지 명함광고든 별도 찬조든 뜻을 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개교 기념식행사와 관련, 일정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서 창원지역동창회는 이번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하반기 행사로 스골프대회 및 야유회(9월 18일) △하반기 이사회(11월 8일) △2022년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12월 6일)을 갖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참석자=△창원지역-김재근 정승수(이상 19회) 김우홍(22회) 김수용(24회) 최신철(25회) 김일광(26회) 김종하(27회) 김정암 박봉구(이상 29회) 조시형(34회) △총동창회-김대욱 김종명 현응열(이상 29회) 윤원욱(39회).

주요 동호회

# 덕경회 재출범, “사업 성공+동문회 사랑” 천명

CEO급 이상 회원 58명...박종찬(25회) 회장 체제 완비

경남중고 출신 경제인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CEO(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급 이상의 상공인으로 동창회 발전에 관심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이들이다. 지난 4년여 동안 활동이 멈춰졌던 덕경회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재출범의 기치를 들었다.



덕경회가 박종찬 신임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덕경회는 이날 16회 송규정 동문부터 53회 황종민 동문까지 회원 58명으로 조직을 새로이 구성했다. 창립 13년 된 덕경회가 이날부로 사실상 재창립 된 것이다. 이날 참석자는 40여명. 이날 이전의 덕경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그간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날 행사의 명칭은 ‘덕경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로 모임의 연속성을 표방했다.

이날 알려진 덕경회 회원 면면을 보

면, 예전에 비해 훨씬 젊어졌으며 순수 상공인 위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교 졸업 기수로 10대 1명, 20대 7명, 30대 23명, 40대 17명, 50대 10명이다. 평균화 이전 세대가 11명, 이후가 47명이다.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날 지금까지 덕경회 2대 수장(首長)으로 역할을 다한 송규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박종찬(25회) 전 총동창회장의 업적을 치하하고 김대욱(29회) 총동창

회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덕경회가 새 출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덕경회는 경남중고 출신으로 기업을 하는 동문 위주의 단체로 출발했다. 이후 포용의 측면에서 관료나 기업 임원 등의 참여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조직의 공유가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일반 동문회 조직과 같이 흘렀다. 회비도 없었다.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이 없다보니 침체기를 맞는 등

회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덕경회가 새 출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덕경회는 경남중고 출신으로 기업을 하는 동문 위주의 단체로 출발했다. 이후 포용의 측면에서 관료나 기업 임원 등의 참여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조직의 공유가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일반 동문회 조직과 같이 흘렀다. 회비도 없었다.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이 없다보니 침체기를 맞는 등

◇덕경회회원 명단=송규정(16회·㈜ 윈스틸) 유재진(22회·스타자동차) 김진철(㈜디오) 박종찬(㈜제이텍) 박세철(㈜광진정기) 김익수(이상 25회·㈜동아유화) 박상호(26회·㈜신태양건설) 김대욱(29회·㈜TM마린) 윤성덕(㈜태광) 정순길(동광조명) 최우철(이상 30회·동진섬유) 남기태(토암건설) 박경수(양산위생공사) 박종호(이상 31회·㈜마텍산업) 이종휘(㈜제이스메탈) 백영태(이상 32회·㈜삼보텍) 박명진(고려개발) 이동근(이상 33회·JL TECH) 황기윤(34회·부일이엔씨) 김재성(㈜해

성코리아) 장인화(동일철강) 정운성(이상 35회·협성운수) 양호진(㈜다함건설) 이창(이상 36회·㈜엠디아이에스) 허부남(37회·금화스틸) 구동주(㈜대양레이저) 권두성(DK GROUP) 정재형(㈜삼성스틸) 조용철(이상 38회·㈜조양메탈) 백기현(㈜초량본가어묵) 하순호(이상 39회·㈜디디에스) 김춘강(파워팜) 우영환(이상 40회·태흥이공업) 김영철(고이계시스템) 윤종진(이상 41회·㈜에스티텍) 한봉균(42회·㈜한빛산업) 강병규(부산합동양조) 박형규(이상 43회·㈜한국과학모형) 안병규

(승원조경건설) 탁정환(이상 44회·㈜D.P.M) 구자삼(㈜아이원 메로 88) 권우일(㈜대경커뮤니케이션) 김상수(㈜에스테크널러지) 조태성(㈜선일물산) 최상배(㈜엠에스테크) 최재근(이상 45회·에스브이테크) 김백권(46회·코럽) 정신(47회·효창수산) 정재우(㈜티비파워테크) 박종현(ROTAL) 이재등(광명잉크) 구원모(대보공업) 김문수(이상 50회·㈜리앤알테크) 정유석(㈜메디올포) 신현식(이상 51회·㈜다원지엠) 김민철(52회·㈜세강메탈) 이원준(㈜갯차) 황종민(이상 53회·㈜동아 P&P)

## 용건회 “경기회복 기류에 함께 타자”

정기모임서 정보교환과 상부상조 정신 강조

건설인 동문으로 구성된 용건회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자갈치 미정횃집에서 2년 만에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모습이었다.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모임이 침체 되었다. 이제 모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종우(18회·전 부경대 교수) 고문은 격려사에서 “선후배간 정보교환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게 중요하다. 아름다운 건설인으로 성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각종 모임이 붓물처럼 많아졌다. 직능단체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현대그룹의 모태가 현대건설이듯, 건설이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다. 회원들의 사업 대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행부 1년 연임안이 박수로 통과됐다. 박 회장, 정현상(32회) 수석부회장, 김인수(41회) 부회



용건회가 2년 만에 정기모임을 가졌다.

장, 이충현(49회) 사무국장이 인사했다. 용건회는 올해 8, 10월(현장방문 혹은 등반산행), 12월(송년회) 정기모임을 갖고, 6월 중 총동창회관 2년차 시공품질 진단을 갖기로 했다.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10분 스피치’에서 이동영(32회·미도종합건설 총괄이

사) 동문은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설에 회원 참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정순길(30회·전기 자재업 및 중국무역업) 이태훈(38회·석재 타일공사) 이종일(38회·엔지니어링업)

이날 송 전 회장과 박명진(33회) 전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덕경회는 이 자리서 회칙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시키고, 감사에 정순길(30회) 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덕경회는 시간 부족으로 전 동문을 아우르지 못했다면서 차후 새 회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회원 연회비 50만원이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송 전 회장은 우미옥 만찬 전액(200만원 상당), 박 회장은 타월 및 떡 70세트, 허 대외협력단장은 건어물 60세트(240만원 상당)와 커피 50잔을 찬조했다.

이날 송 전 회장은 우미옥 만찬 전액(200만원 상당), 박 회장은 타월 및 떡 70세트, 허 대외협력단장은 건어물 60세트(240만원 상당)와 커피 50잔을 찬조했다.

한편 덕경회는 시간 부족으로 전 동문을 아우르지 못했다면서 차후 새 회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회원 연회비 50만원이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송 전 회장은 우미옥 만찬 전액(200만원 상당), 박 회장은 타월 및 떡 70세트, 허 대외협력단장은 건어물 60세트(240만원 상당)와 커피 50잔을 찬조했다.

이날 송 전 회장은 우미옥 만찬 전액(200만원 상당), 박 회장은 타월 및 떡 70세트, 허 대외협력단장은 건어물 60세트(240만원 상당)와 커피 50잔을 찬조했다.

<기사 23면에 넘김>



경미회 족구대회에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 결속을 다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불꽃 파이팅’으로 총동창회 미래 기약

### 경미회 족구대회 성료...“멋지게 놀며 행복 추구”

경미회 회원들의 족구 실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낮 금정산성 물레방아가든에서 열린 족구대회 결승전은 ‘역대급 경기’였다는 평이었다. 분과별 경쟁의식에다 경기의 노련미까지 더해져 각 시합마다 흥미진진한 관전거리를 제공했다.

경미회는 이날 행사에 회원 70여명이 참가, 참가율 90%를 보이며 결속을 과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자 경미회 명예회장,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이수환(37회) 야구후원회 홍보국장, 김경곤(38회) 덕형리그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장과 비회원 3명이 참석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기를 모두 마치고 염소불고기 파티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미회 존재만으로도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 파이팅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에서 총동창회의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다. 박



족구대회를 마치고 시상식을 겸한 단합대회가 열리고 있다.

회장은 알래스카의 한 운명철학자가 말한 ‘외적 행복이 내적 행복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인용, “우리 끼리 멋지게 놀아야 총동창회,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참석자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박종찬 고문은 격려사에서 “총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창회관 건립과 경미회 창립을 2가지 큰 치적으로 꼽는다. 총동창회의 재산목록 1호는 경미회



족구대회 결승전 출점팀의 인사.

창립”이라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 자리에서 경미회의 족구 실력 향상을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최우수선수상에 권우일(45회) 동문, 미기상에 정유석(51회) 동문을 각각 선정하고 시상금 각 30만원과 20만원을 전했다.

우영환(40회) 경미회 초대회장은 “경미회 회원은 총동창회 회원임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 덕형리그 사무국장은 오는 10월 기별야구대회 참여 독려와 함께 SSG 주최 노브랜드배(고교 동창 야구대회)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이날 족구대회 성적은 우승 대외협력 분과A팀(상금 50만원), 준우승 문화체육분과 A팀(“ 30만원), 3위 미래발전 분과 A팀과 사회공헌분과 B팀 공동수상(“ 각 10만원), 최다참가상 대외협력 분과(“ 20만원), 최다참가기수 41회(8명·“ 20만원), 응원상 친목교류분과(“ 20만원) 등으로 기록됐다.

이어 협찬품에 대한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이날 행운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안 나온 사회공헌분과에 박 고문이 특별찬조 30만원을 건넸다. 경미회는 이날 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회원에게 지급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찬조내역(직책 생략)=총동창회 30만원, 덕형리그 30만원, 박종찬(25회) 100만원, 최영준 50만원, 이양걸(이상 41회) 20만원+해운대연가 5만원 6장, 박동식 100만원, 문지성 20만원, 신봉준 30만원, 정용중 30만원+이가한우 5만원권 4장, 강인호(이상 42회) 롯데상품권 20만원, 강병규 30만원+생략, 김대영(이상 43회) 롯데상품권 20만원, 안병규 50만원, 탁정환(이상 44회) 30만원, 구자삼(45회) 30만원, 정신(47회) 50만원.

## “개교 100년 완성할 주역으로 부각”

### 경미회, 정기모임 갖고 결속 강화

경미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행사를 어렵게 지속해오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경미회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체육행사 및 통합하여 치르던 정기모임 행사를 4월 21일(목)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정식으로 열었다. 3기 집행부의 첫 정기모임이기도 했다.

이날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면에

서 제약을 받았다. 이제는 경미회 발전과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날 자유롭게 마음껏 즐겨 달라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경미회가 총동창회의 든든한 미래”라면서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시 ‘春夜(춘야)’에 나오는 ‘春宵一刻直千金(춘소일각치천금)’이란 구절을 소개하고, 봄날



경미회가 정기모임을 갖고 참석자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함께 모인 이 시간을 즐겁고 가치 있게 보내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류명석(31회) 모교 개교 80주년기념식 집행위원장이 참석, “경미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예상보다 많은 모금액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행사 당일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최영준(41회) 경미회 고문은 “얼굴 보는 것만큼 반가운 게 없다. 우리 모임은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라면서 결속 강화를 주문했다. 강병규(43회) 동문의 건배제의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 2차 자리에 합석한 박종찬(25회) 고문은 “개교 100년 역사의 남은 20년에서 경미회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이다. 기수별로 스토리를 동창회보에다 축적하라”면서 회보 구독료 납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고문은 “경미회 발족이 큰 보람이다.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미회 신입 막내 55회 김태현 박기홍 이동주 최유성 황시우 동문의 소개가 있었다.

박 고문은 2차 뒤풀이 자리 비용을 찬조했다.

<기사 22면에서 받음>

강훈(41회·전기전자공사) 전명재(67회·토목 조경공사) 동문이 소개됐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이 격려금을 전했다.

◇용건회 참석자=류종우(18회) 오경석(20회) 이영학(26회) 정순길(30회)

류명석(31회) 박성철 이동영 정현상(이상 32회) 최웅남(33회) 박철웅 오주흔(이상 34회) 김기덕(37회) 김경곤 이종일(이상 38회) 김인수 전삼록 김신욱 김영철 한창희 황정후 강훈(이상 41회) 장일천 강인호(이상 42회) 전순표(43회) 조정래(45회) 이충현(49회) 서석진(50회) 신현식(51회) 김권우(53회) 전명재(67회).

# 덕형리그, 2년여 만에 모교 운동장을 뛰다

## 경남고 외부 개방...14개팀 풀리그 열전

“이제 얼마 만인가? 이 넓은 운동장, 이 맑고 푸른 하늘, 이 깨끗한 공기! 이제 마음껏 치고, 달리고, 뛰어보자.”

지난 5월 7일 오후 경남고 운동장이 2년여 만에 외부에 개방됐다. 세계 유일로 회자되는 고교동문리그 야구대전인 덕형리그 개막식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자마자 모교 운동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활짝 열렸다. 모교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올해도 BPA구장에서 약식 경기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모교 운동장 사용이 결정되자 풀리그 대진표를 작성했다. 14개팀이 출전, 열전을 벌인다. 내년부터는 55회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개막식은 33회와 38회의 개막 경기(38회 10-1 콜드게임승) 이후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리그 팀별 대표들과 백영선 경남고 교장,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등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덕형리그 개막식이 경남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윤조(33회) 덕형리그 회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전년도 우승팀 44회의 우승기 반납이 있었다.

이 회장은 개막식사에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았다. 그런 만큼 이제는 동기간 단합하고 선후배간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부상 없이 리그를 잘 치르자”면서 “모교의 좋은 환경에서 경남중고 동문 간 야구라는 운동의 목적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덕형리그는 올해 경기를 모교 운동장과 임대권 매각 시까지 BPA 운동장을 함께 사용한다. 특히 선후배간 정을 나누는 의미에서 실버리그와 블루리그를 통합, 풀리그로 치른다. 덕형리그는 일본 대마도팀과의 교류전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지역 내 사회인팀과의 교류는 고려 중이다. 또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가칭)는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축사에

서 자신이 모교 36회 졸업생의 나이라고 밝히고, “이 나이에 야구하는 동문 분들이 행복해 보인다. 부럽기도 하다. 재학생 후배들에게도 이 기운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열(29회) 덕형리그 고문은 축사에서 “덕형리그의 정상화를 계기로 참가자들이 더욱 단합하고 화합해 큰 발전을 이루어 가자”면서 회원들이 멋진 야구인이 되길 기원했다.

시구행사에서 백 교장이 시구자로, 장지훈(55회) 동문이 시타자로, 이 고문이 시포자(始捕者)로 나섰다.

이날 총동창회는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용마골프회와 경미회가 협찬금을 전했다. 전년 우승팀 44회는 더블베이스를 기증했다.

◇참석자(소개 내빈)=백영선 경남고 교장, 현응열 총동창회 사무총장, 박봉구 \* 운영위원, 이문열(이상 29회) 덕형리그 고문, 이동근(33회) 용마골프회 회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경미회 문지성, 신봉준(이상 42회) 부회장, 김대영(43회) 미래발전분과위원장, 한중현(52회) 사무차장, 청마회 장지훈(55회) 동문.

## “전광열 감독 성원 우정 결실 이루자”

### 44회 동기회, 황금사자기 출정식 주최

경남고 야구부 전국대회출정식이 지난 5월 11일(수) 오후 대한통운빌딩 뷔페에서 44회 동기회 주최(사진)로 열렸다. 44회는 동기생 전광열 감독을 성원하는 따뜻한 우정의 행사를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 53명 전원과 전광열 감독을 위시한 코칭스태프, 백영선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동문 다수,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그리고 주최 측인 44회 동기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백 경남고 교장은 격려사에서 “전반기 대회 전승 우승을 한 야구부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코치진과 학부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전국대회에서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탁정환 44회 동기회장은 야구부 선수들에게 “많이 먹고, 다치지 말

고, 훌륭한 선수가 안 되어도 된다. 열심히 하라”고 짧고 굵은 응원사를 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이 자리를 빌어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200만원을 전 감독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덕형리그 100만원, 경야회 100만원,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류명석(31회) 집행위부회장-허부남(37회) 동문-박근태(39회) 학교운영위원장-류법권(43회)-구자삼(45회) 동문 등이 금일봉을 직간접으로 전달했다.

선수단은 이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동문선배들로부터 좋은 기를 한껏 받았다.

◇참석 동문(직책생략)=현응열(29회) 류명석(31회) 이윤조(33회) 허부남(37회) 김경곤(38회) 윤원욱(39회) 강훈(41회) 탁정환 안병규 석상봉 신진수 정종윤 임정훈 정상민 이승철(이상 44회) 구자삼(45회) 정신(47회)



## 경남중 야구부, 중학선수권 우승 잔치

### 김대욱 총동창회장, 사비로 호텔축하연 마련

경남중 야구부가 2022년 중학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축하연(사진)을 사비로 마련했다. 축하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연산동 소재 부산시티호텔(24회 노상우 동문 운영)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중 야구부 코칭스태프와 선수 40명을 비롯해 총동창회, 경야회 및 야구후원회, 덕형리그, 경남중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 등 60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하인사를 먼저 건넨 김 총동창회장은 선수들에게 “총동창회에서는 모교 야구부를 다각도로 후원하고 있다.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미정 경남중 교장은 “선수단은 오늘 이 같은 즐거운 자리가 만들어진 뜻을 잘 기억해야 한다. 명문의 자부심을 갖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길 바란다”면서 총동창회

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상욱(53회) 경남중 야구부 감독은 “선수, 학부모, 학교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총동창회-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김태호(38회) 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경야회 및 야구후원회-박종찬(25회) 야구후원회 수석 부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정신(47회) \* 부회장, 김동주(51회) \* 사무국장, 이옥한(55회) 야구후원회 홍보차장, 유영재(60회) \* 사무차장 △덕형리그-이윤조(33회) 회장, 강훈(41회) 경기이사 △경남중-김미정 교장, 이성광 교감, 김홍철 체육부장, 김경배 체육부감 △경남중 야구부-김상욱(53회) 감독, 김성환(61회) 최성훈(66회) 석지형 코치 \* 선수단-1학년 7명, 2학년-13명, 3학년-16명 △기타-학부모 2명





# 노브랜드배 'OB덕형', "우승 가자" 열정 불타

## 이종운 감독·송승준 코치, 선수들과 담금질 비지땀

**SSG 고교동창야구 8월 개최**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주최하는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가 오는 8월 개최된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에서는 덕형리그가 주도하여 대회를 참가하기로 하고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5월 23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고등학교 OB덕형'으로 명명한 경남고팀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단장, 이윤조(33회) 덕형리그 회장과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을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감독에 이종운(39회)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코치에 송승준(53회)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를 기용했다. 고문단에 송규정(16회·상임고문) 구본능(21회) 유재진(22회) 김진철 박종찬(이상 25회) 박상호(26회) 동문을 위촉했다. 또 허규연(24회) KBO총재를 명예감독으로, 이문열 덕형리그 고문과 현영열(이상 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을 자문으로 선임했다. 사무국장 김경곤(38회), 경기운영이사 강훈(41회), 총무 김현진(52회) 동문이다.  
선수는 모두 29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기수 생략). 이윤조 박상국 이수관 김경곤 강훈 서상대 정신 서정민 장순재 김현진 하상운 정길수 박정진 이상기 손창오 남준현 박기엽 우영진 김진욱 박영진 박종국 이동준 전명진

정현철 석상봉 신진수 김성훈 이재곤 최민석.  
한편 OB덕형팀은 지난 5월 28일 이후 경남고 운동장에서 상견례 겸 첫 연습을 가진데 이어 6월 4일 두 번째 연습을 실시했다. 이종운 감독과 송승준 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했다. OB덕형팀은 대회 시작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남고 운동장에서 연습을 갖는다.  
이날까지 찬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대욱 총동창회 회장 300만원,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200만원, 이문열 덕형리그 고문 50만원, 이윤조 덕형리그 회장 30만원, 총동창회 30만원.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도시락세트 점심을 먹고 있다.

## 경남고 야구부에 '도시락 선물' 허부남(37회) 동문, 상대팀·심판진에도 전달

'인정(人情) 많은 남자' 허부남(37회) 동문이 또 한번 일을 쳤다. 허 동문은 지난 5월 7일(토) 낮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를 방문, 전반기 주말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던 경남고 야구부(감독 전광열·44회)와 박광울(42회) 동문이 감독으로 활약 중인 상대팀 부산정보고 야구부에 점심과 음료수 및 간식 등을 전달했

다. 경남고 60세트, 부산정보고 50세트와 함께 심판진과 본부석(야구협회 직원+볼보이)까지 각 10세트씩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했다.  
허 동문의 멋진 무한 모교사랑이 총동창회 밴드에 소개되자 많은 동문들의 찬사가 줄을 이었다. '귀감'이란 단어의 뜻을 선행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 45회 야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45회 야구장학회(회장 구자삼)의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4월 6일(수) 오전 경남고 교장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구 회장과 김상수 동문이 백영선 경남고 교장을 예방하고 2년치 장학금 1,440만원을 전달했다.  
45회 야구장학회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 2명에게 매년 총 720만원(매달 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이다. 전달식은 2년마다 치른다.

의차 교장실을 방문했던 류명석(31회) 집행위원장은 후배들의 선행을 격려했다.



지난 2011년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이후 결성된 이 장학회는 본부동기회와 재경동기회 동문들이 십시일반 각출, 매년 각기 360만원을 모금하고 있다.  
이날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는

## 야구후원회, 모교 야구부에 후원금 집행

7건에 6,352만원 지출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처음으로 후원금 지급을 실시했다. 경남중 2건, 경남고 5건 등 모두 7건의 지출집행이 있었다. 지출 후원금 총액은 63,527,000원이다.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중에 하드야구공 12타60EA(5,280,000원), 하계 연습복 상·하 50세트(5,000,000원)가 지원됐으며, 경남고에는 사사키 스파이크(8,745,000원), 바람막이 상의(4,002,000원), 빅터스, 마루치,

히코리 배트 60(15,000,000원), 하드 나무배트 10(1,500,000원), 경남고 기숙사 사감비(62회 정규창) 12개월분(24,000,000원)이 전달됐다.  
한편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제패의 감동이 야구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규정(16회) 박정태(30회) 백현성(35회) 50회 동기회, 김민철(52회), 최익제(55회) 동문 등이 황금사자기 우승축하금을 보내왔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 2077 9886 02 유재진

## 경남고 야구부에 또 치킨 선물

익명의 44회, 100만원어치 주문

지난해 8월말 경남고 야구부에 치킨 100만원어치를 선물한 익명의 44회 동문이 올해도 100만원어치의 치킨을 경남고 야구부에 선사했다(사진). 익명의 동문은 지난 5월 17일 이수환(37회) 동문의 무바마치킨점(사하구 장림동 신우림아파트 상가1층)을 방문, '우리 전 감독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쪽지를 남기고 100만원어치 치킨 택배를 주문했다.

남고 야구부에 치킨을 전달하고, 익명의 기부자의 뜻을 전달했다.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출전을 앞두고 맹훈련을 하던 선수들은 잠시 동문 선배의 선물 치킨을 먹으며 맘을 식혔다.



치킨점 대표 이 동문은 이날 오후 경



## 경남중 야구부에 바람막이 50벌 기증

정신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으로 활약 중인 정신(47회) 동문이 지난 5월 21일 경남중을 방문, 야구부 선수를 위한 바람막이 50벌을 후원했다(사진). 바람막이는 허근영(52회·오각스포츠) 동문이 제작한 것으로 경남고 야구부와

동일한 디자인이다. 한편 정 동문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경남중 야구부에 동계 바람막이 50벌을 기증한 바 있다. 정 동문은 5월 24일 노재완(38회) 감독이 이끄는 대신중을 방문, 소년체전 부산대표 출전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석 신부 동상이 봄옷으로 환복했다.

### 이태석 신부 동상, 봄옷으로 환복

‘톤즈의 성자(聖者)’ 이태석(35회) 신부 동상이 지난 4월 봄맞이 환복을 했다. 경남고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교정에 있는 이 신부 동상의 겨울옷을 거두고 노란색 싱그러운 봄옷으로 갈아 입혔다. 경남고 교정에서는 이 신부가 남긴 ‘섬김’ ‘기쁨’ ‘나눔’

등 참사랑의 향기가 더해진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졌다. 학생 자치회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덕형관 앞에 대형 결계를 게시하였다.<9면 사진 참조>

### 야구부에 세탁기·교사진에 아이패드 기증

구본능(21회) 희성 회장, 야간조명 이은 후배사랑

구본능(21회·희성그룹 회장) 동문이 경남고 야구부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세탁과 건조 기능이 내장된 일체형 워시타워 5대를 지난 4월에 기증했다(사진). 야구부는 땀이나 오염으로 얼룩진 운동복을 한 번에 세탁과 건조 모두를 마칠 수 있어 위생과 건강을 한결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로운 필기와 자료 활용에 있어 편리성을 도모하는 수업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구 동문은 교사진에게 아이패드 5대를 기증했다. 자유

### 영재학급 입학식 개최...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경남고 영재학급의 입학식이 지난 4월 1일 열렸다(사진). 학생들의 재능개발을 탐색하고 역량 중심의 영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

들은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영재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마인문학당, 메타버스 특강 개최

경남고 용마인문학당은 지난 5월 11일(수) 7교시에 메타버스 관련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자 확장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미래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참가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탐색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보며 자신의 미래 직업과 삶을 설계하거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신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제41회 스승의 날 맞아 스승 공경 행사

올해로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고 학생들은 학생회 회장단과 학급 임원들 중심으로 스승 공경의 행사를 지난 5월 14~16일 준비하였다. 손수 만든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교직원에게 주는 표창장(스치기만 해도 치명상, 타박상, 달리의 자화상, 굼프의 자화상, 수트핏상, 지혜로운 왕이 될 상, 배꼽 도둑상, 왕이 될 상, 하극상 등)을 만들어 담임, 비담임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실과 영양사 선생님, 교무실 실무원 선생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등 전 교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서 표창장을 큰 소리로 읽고 전 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교사 등곶길맞이(사진)를 통해 학생들은 교직원들과 함께 스승의 날을 기념하였다.

###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강사 초청 입시설명회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강사 초청 입시설명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근 열렸다(사진). 2023, 2024학년도 대입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입

시 결과를 전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대입 준비와 학기 초 관심이 많은 대학별 입시 정보를 제공, 학부모의 입시 정보에 도움을 주었다.



### 평화 통일 골든벨 대회 열어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해 바람직한 역사관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 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교에서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우수 학생에 대해 본선 대회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경남중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

### 경남중 체육대회, 소통·협력으로 협동심 길러

#### 440여 재학생과 교사 어울려 열린 축제 한마당

경남중은 지난 5월 따뜻한 봄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생들 및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였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였다. 2월 조성된 친환경 잔디구장에서

약 440명의 재학생들이 이어달리기, 전략 줄다리기, 줄다리기, 5인 6각, 8자 줄넘기, 낫다리밟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특히 사제 동행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경기에 참여했던 축구 시합, 2인 3각, 줄다리기 종목을 통해 사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별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플라잉디스크 던지기, 제기왕 선발대회, 리프팅왕 선발대

회 부스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경남중, '포스트 코로나19' 교육활동 활발

경남중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학습결손은 물론이고, 기본생활습관과 공동체 생활, 교우관계 등 사회성 결여라는 교육적 손실을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만회하고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중의 '포스트 코로나19' 교육활동들을 소개한다.

#### 바른 학습태도 위한 '열공학급' 시행

경남중은 지난 5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바른 학습태도 형성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공학급'을 시행, 운영 중이다.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급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과교사가 열공학급에 투표하고 매달 열공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에 칭찬과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열공학급 1학년 현황판.



열공학급 2학년 현황판.



열공학급 3학년 현황판.

#### 학교 적응력 향상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가동

경남중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별맞춤 컨설팅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또래교사제'이다. 이는 친구들끼리 '멘토-멘티'팀을 구성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받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적응력 강화 상담이다. 5월 중순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미술 상담, 음악 상담, 반려동물 매개 상담 등 전문적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및 생활 적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셋째, 공부의 달인, 토크 콘서트이다.

교과 교사가 해당 교과를 공부하는 방법과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 향상, '꿈'을 이루기 위한 팁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한다.

넷째,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5월 문화체험의 날' 운영이다. 5월 2~3일 전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브라질 타악기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함께 악기를 다루며 의사소통, 협동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했다. 나아가 학교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학습동기 부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바른 언어 사용 '계단 표어 공모전'

경남중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바른 언어 사용습관 형성을 위한 '계단 표어 공모전'을 지난 4월 25일~5월 10일 진행했다. 언어순화 및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참신한 표어를 공모했다(사진). 선정된 표어는 학교 계단에 표찰형태로 부착한다. 이로써 향시 학

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른 언어 사용습관을 습득할 있는 학교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학력신장적성개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경남중은 기초학력 신장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행한다. 비용은 무료이다. 교과과목 학력신장과 특기 적성 2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력신장을 위해 국어, 영어, 역사 문제풀이 반을 개설했다.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미술, 보컬 등 활동반을 운영한다.

#### '과학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펼쳐

경남중은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쉬었던 '과학의 날' 행사를 전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제 과학의 날은 4월 21일이다. 교문이벤트(추억의 뽑기), 대형 도미노 만들기, 투석기 만들기,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과학'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각자 희망에 따라 참여, 과학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동료 학생들과 도미노, 투석기 등을 실제로 만들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도미노 만들기.



#### '경모삼천지교 학부모회' 행복한 학교 만들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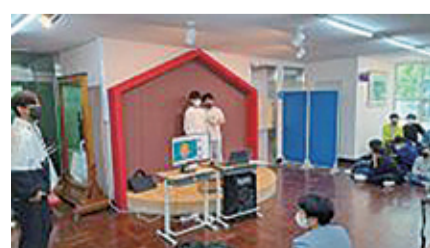
올해 새 학기 학부모총회에서 결성된 '경모삼천지교 학부모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부모 참여 사업을 통해 소통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이 모임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에 빨간색 카네이션 포토존을 만들어 스승을 위로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승과 학생들 간의 추억을 한 장의 사진에 남기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사진 위).

또 지난 5월 14일에는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운동으로 '함께하는 행복걷기'에 13명의 학부모가 대신공원 입구에서 출발하여 내원정사 입구까지 산행을 하였다(사진 아래).

#### '경남중 버스킹' 실시...“너의 끼를 발산하라”

경남중은 개성 강한 남자 중학생들의 끼 발산을 목적으로 재학생 대상 '경남중 버스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13:00~13:25)

교내 소규모 공연 무대에서 펼치고 있다. 지도교사의 입장(臨場)지도 하에서 자신의 가창 실력과 무대매너를 뽐낼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문화활동이다.



소규모 공연 무대.



관람 중인 학생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 K-청마회 첫 정기총회 성황...조직 틀 갖춰

## 회원 24명 확보, 연내 100명 목표로 확장

지난해 10월 창립했던 K-청마회(이하 청마회)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창립 7개월 만에 회원수를 늘리면서 조직의 틀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청마회는 졸업기수 50회부터 67회까지 3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날 청마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선배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청마회는 50회부터 경남고 졸업 이후의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 '새내기' 들까지 회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주문 제작한 청마회 회기를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정재우(50회) 청마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 청마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후배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모임이다. 연내 100명을 목표로 참여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일하다가 어떤 복장이든 행사에 참여해 달라.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강당이 짝 차 든든한 느낌이다. 청마회 회원은 인생의 계절에서 봄이다. 부지런히 씨 뿌리고 가꿀 때이다. 열심히 일하되 성공만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남과 더불어 배려하고 기부하는 삶을 살면 나

중에 몇 배의 복이 돌아온다"면서 젊은 후배를 위한 삶의 자세를 전해주었다.

이 자리서 박종찬(25회) 고문은 "청마회는 경미회서 파생된 또 다른 우리 미래의 자산이다. 젊은 후배들 영입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다.

박동식(42회) 경미회 회장은 "청출어람이다. 청마회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허부남(37회) 동문은 "학연이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좋은 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면서 젊은 후배들의 장밋빛 앞날을 기원했다.

이날 중부산지구 이영학(26회), 강서지구 김종규(31회), 부산진·연제지구 이윤조(33회), 해운대지구동창회 정윤희(36회) 회장과 동래·금정지구 박정민(38

회) 사무국장 등 지구단위 인사들도 참석, 축하와 더불어 지구별 회원 확보 홍보전을 벌였다.

이 자리서 청마회 집행부 소개가 있었다. 정 회장을 비롯, 정유석(51회) 수석 부회장, 김지운(52회) 사무총국장, 김권우(53회) 사무국장, 조중완(54회) 재무국장이 인사했다.

이날 56회 동기회 장재환 회장 등 회원들이 나와 6월 3일 창립총회 개최를 알리고 동문 선후배의 성원을 부탁했다.

◇찬조 내역(직위 생략)=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25회) 타월 80장, 박종기(28회) 20만원, 김대옥(29회) 50만원, 이종휘(32회) 30만원, 허부남(37회) 50만원, 김태호(38회) 10만원, 박근태 20만원, 백기현(이상 39회) 20만원, 우영환

100만원, 배병훈(이상 40회) 30만원, 박동식(42회) 30만원, 탁정환(44회) 50만원, 구자삼 100만원, 권우일(이상 45회) 30만원, 45회 동기회 20만원, 김백권 30만원, 최원석(이상 46회) 30만원, 정신(47회) 30만원, 최진영(49회) 20만원, 정재우(50회) 50만원+타월 20장+2차 비용 100만원, 신현식 10만원, 정유석 150만원 상당 삼푸·화장품, 최우영(이상 51회) 10만원, 경야회 50만원, 덕형리그 30만원, 용건회 20만원, 용마골프회 30만원, 경미회 30만원, 강서지구 20만원, 해운대지구 20만원, 동래·금정지구 10만원,

◇참석 K-청마회 회원=정재우(50회·회장) 정유석(수석부회장) 김동주 최우영(이상 51회) 김지운(사무총국장) 김민수 김민철 정상중 한중현(이상 52회) 김권우(사무국장) 우재준 이원준 이응배 황선경(이상 53회) 조중완(재무국장) 정준섭 이동하 임길환 고지현(이상 54회) 장지훈 이옥한 김태현 이동주 최유성 황시우(이상 55회) 장재환 김경모 김선철 이승민(이상 56회) 박주환 안재영(이상 57회) 김성수(59회) 이재곤(62회) 김덕형(66회) 전명재(67회)

◇참석 내빈(기수순·직책생략)=박종찬 이영학 박종기 김대옥 김종명 정순길 김종규 이윤조 정윤희 허부남 김태호 박정민 정재형 조용철 백기현 윤원욱 배병호 우영환 박동식 문지성 신봉준 탁정환 권우일 김백권 배준수 감기환.



청마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총동창회관 입구 계단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 창립 44년 연륜만큼 깊은 우정의 경성회 팬데믹 극복 자축 모임 갖고 신규회원 확보 나서

창립 44년을 맞은 경성회가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고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동문 모임 경성회는 지난 5월 27일(금) 오후 중앙동 오투기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를 극복한 회원들의 건강을 자축하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

경성회는 1978년 나이 서른을 갓 넘긴 강창수 김차근 성윤수 이창희(이상 21회) 최대일(23회) 동문 등이 의기투합하여 16회, 17회, 18회, 19회 선배 동문을 참여시켜 발기, 결성되었다. 경성회는 지금까지 40여명의 회원이 매달 세 번째 화요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현응열(29회·총동창회 사무총장) 회장은 "경성회는 그 어느 동문 단체보다 우정의 깊이가 대단하다. 오랫동안 교우회와 소통이 잘되는 등 선후배 동문간 친형제 이상으로 정이 깊다"고 말했다.

이날 경성회는 신규 회원을 발굴, 모임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기로 하고 전 회원이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가입 희망자 연락처 : 박동식 총무(010-7244-0451) 현응열 회장(010-2409-7836)

◇참석자=강창수 김유건 송원경(이상 21회) 원희광(24회) 강용주 조광도(이상 25회) 김지원 조영일(이상 27회) 현

### 용마언론인클럽, 정상 회복 '만남의 시간'

부울경 용마언론인클럽 정기모임이 지난 4월 26일(화)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 식당에서 열렸다(사진). 코로나19 사태로 뜸했던 모임이 정상 회복 노력의 시간을 가진 셈이다. 이날 모임에는 언론인 김기열(23회) 이만수(28회) 김종명(29회) 김재철(30회) 조선(34회·회장) 정윤희(36회·사무국장) 강병균(38회) 이태욱(40회) 정홍준(42회) 동문과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회원들의 고통은 일 좋은 일 등 동정을 소개한 뒤 건강문제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가을쯤 코로나 19 쉼 편이가 닥친다고 한다. 회원들 각자가 면역력 향상을 기해 철저한 대비를 하자"면서 4월 30일 개교 기념식에 많은 회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리서 김기열 동문은 모교 80년 사 집필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막바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수 동문은 현직에 있는 동문들의 '신분 상승' 등 건승을 위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자신이 현역 기자 시절 특종했던 대아호텔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현 사무총장은 이날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뒤풀이 자리 비용은 이만수 동문이 찬조했다.

응열(29회·회장·총동창회 사무총장) 오민일(31회) 박태종(33회) 이정철(34회)

조수용(38회) 심철보 박동식(이상 42회·총무·경미회 회장).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 14회 = 5월 14K 만남의 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 3년여 만의 만남이다. 그뻘 얼굴들이 좋았는데 3년 동안 못 본 사이 폭삭 늙었다. 서면 소재 아리 한식집에서 약 30여 명의 동기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이야기 꽃 피웠다. 박현목 회장의 인사말 후 차기 회장 이수남, 차차기 회장 이광언 동기를 선출하였다.

#### 14회 = 재미 동기생 모임



지난 4월 28일~5월 1일 김동원 김양영 민발식 박기정 박순삼 배정현 배광웅 이태영 장한교 전영성 최남천 최수길 한수봉 부부 등이 워싱턴 근교에서 오랜만에 모였다. Potomac River Cruise 후에 Washington Monument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아직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신들에게 모두 감사해 하며 순간 순간들을 즐겼다. 이번 모임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서 신준호 윤승홍 동기가 푸집한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고마움을 전한다.

#### 15회 = 정창환 동문 출판기념회



경남중고 15회 정창환 변호사의 3번째 출판인 '미술 속으로 산책' 출판기념회가 지난 6월 1일(수) 낮 12시 서면 아이온파티 뷔페에서 동기생 27명과 변호사 관계인 20여명이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강무상 강민조 권승부 김윤기 김정길 김종태 박재준 박준철 박찬호 손부홍 손재형 안충용 윤상준 이강남 이선공 이종명 이창일 임상택 임영길 장종호 정수방 정준수 정창환 최욱 하영수 한해수 허두영

#### 17회 산악회 = 수정산, 엄광산 산행



지난 4월 24일(일) 모처럼 합동산행이다.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다. 부산진 부산일보사 앞에 오전 10시에 모여

## 13회 동기회 정기총회, "100세 시대 잘 맞자"

13회 동기회가 지난 5월 26일(목) 낮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보고와 임원 개선을 했다(사진). 이날 행사에 19명의 동기생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치고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 식당에서 코로나19로 조면(阻面)했던 아쉬움을 달래듯 우정의 잔치가 벌어졌다.

최태환 동기회장은 "오늘 참석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건강관리 잘해 100세 시대를 맞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대결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배 동문 본인의 고사로 현재 회장은 공석이다.

이날 13회 동기회는 회식자리에서 80년사 편집위



원들과 조우, 식사비 일체를 찬조했다. 총동창회에서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참석자=강종원 김부운 김정일 박민보 서종학 신민철 안성문 장영길 장위추 조광수 조성호 이태남 이태랑 최태환 한병우 허갑도 정영화 제병민정은섭.

## 15회 동기회, 정창환 동문 신임회장 선임

15회 동기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동기회를 갖고 업무보고와 함께 임원 개선을 단행했다(사진). 지난 3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손부홍 동문은 정창환 동문(변호사)에게 바통을 넘겼다. 손 회장이 취임 당시 '1년 뒤 정 동문이 회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수락한다'는 조건을 이행한 셈이다. 강민조 동문이 재무, 손 회장이 감사에 선임됐다.

15회 동기회는 지난해 못 가졌던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올해 갖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에 강무상 동문을 위촉했다.

이날 논의 사항을 두고 세찬 논쟁이 오가는 등 자칭 '벌떼'다운 기백을 과시, 동기회의 건강성을 확인 해주기도 했다.

정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기회 회관을 코로나19 직전 매각한 대금이 기천만원 있다. 소중한게 쓰자. 자주 보고 즐겁게 놀자"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전달했다.

◇참석자=강무상 강민조 김경일 김상차 김정길 김종태 김중광 김판열 박소남 박용 박재준 박준철 손부홍 이강남 이기준 이기철 이선공 이종명 이창일 임상택 오세창 윤상준 장종호 정수방 정준수 정창환 최병우 최원수 하영수 허두영.



수정동 산복도로 아바구길까지 마을버스로 이동, 수정산 언저리에서 엄광산 언저리 중허리길, 옛날 시락국자리 전도등 안부에 도착. 등산객들이 붐빈다. 이진우 군이 가져온 삶은 계란으로 간식을 즐기며 숲속방담을 나눈다. 석탑 뒷길로 내원정사에 내렸다. 점심때라 북적거리는 할매집 정구지전, 시락국에 시원한 소맥 한잔이 잘 넘어간다. 식후 운동장까지 내려와 산행을 마친다.

참석자: 김길호 김종국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청홍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진우 하영수

#### 18회 토요일등산회 = 정기산행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5~17명의 동기생들이 모여 금정산을 오르다가 체력관리차원에서 최근 장소를 바꾸었다. 지난 4월 30일 노포동 전철역에 모여 통도사 뒤 지내마을까지 차로 이동했다. 영축산 능선에서 시작하여 비로암을 거쳐 극락암에 올랐다. 도시락과 간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 4시반경



다시 지내마을로 하산. 양산시내에서 목욕과 저녁식사까지 해결하고 산행을 마무리했다. 이 모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7년째 매주 토요일 산행을 계속 해오고 있다. 특히 매년 봄, 가을 타 지역으로 원정등산도 하고 있어 다른 동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참석자: 김길제(회장) 송유봉(총무) 강덕용 김만근 김사권 김용기 김정태 노성현 박건태 박영복 손천익 이재일 정정돈 천두갑 홍광희

<기사 30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9면에서 받음>

23산우회 = 지리산 둘레길 산행



지난 4월 24일 23산우회는 13명의 동기가 모여 지리산 둘레길(오미~방광) 산행을 하였다.

참석자 : 김덕규 김영기 김현구 박재완 송충송 안호창 오윤안 이상운 이승국 이용원 정연철 조운중 최인식

23회 동기회 = 5월모임



지난 5월 23일(월) 오후 6시 서면 녹산횃집에서 34명의 동기가 모여 총회모임을 가졌다. 2020년 10월 26일 모임 이후 19개월 만에 가진 모임이다. 올해는 특히 매월 '건배'를 즐기는 모임을 갖자고 다짐했다.

24회 산우애 = 4월 시산제 겸 정기산행



지난 4월 2일(토) 경남고등학교 정문~구봉산 봉수대 아래 시산제 장소~대신공원 입구~지하철 동대신동역~자갈치역~식당 코스로 시산제 겸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시산제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2020년 및 2021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광두회 동문을 산우애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참석자 : 광두회 구자웅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박홍규 배재일 안형수 유홍석 장수현 장현동 정영환 조재진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태창업 황규선

한편, 지난 5월 7일(토) 부산진역 앞~통도사 입구~구자웅루트 입구~전망대~옥련암 입구~선미돈돌이식당~부산진역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광두회 산우애 회장 취임 후 첫 산행으로 2015년 4월(26명 참석) 이후 최다인원인 24명이 산행에 참석하였다. 구자웅 동기의 산행안내와 식사 제공으로 멋진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 : 광두회 구자웅 김도현 김성권 김성득 김영식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박홍규 배재일 손세영 안형수 유홍석 이현우 장수현 장현동 전대현 정영환 조재진 최승국 태창업 황규선 황성동

24회 동기회 = 2022년 첫 모임 개최

지난 5월 24일(화) 오후 6시 삼송초밥에서 2020년 10월 모임 이후 19개월 만에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광두회 구자웅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인철 김장현 백산흙 손세영 신병현 안

용마테니스회, 재창립 '스매싱'

용마테니스회가 지난 5월 22일 정식 재창립 되었다. 지난해 10월 재창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지 7개월 보름여 만에 성사를 보았다. 게스트 2명을 포함, 총 23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날 영도구 해양경찰서 앞 구민테니스장에서 재창립 행사(사진)를 가진 용마테니스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총동창회에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옥(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석(35회·박동물종합병원 원장) 회장은 이날 재창립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회원 찾기가 어려워 재창립식이 지연되었다. 그런 만큼 회원 한 명 한 명이 귀한 존재이다. 올해 83세인 두 선배님도 코트를 누빈다. 몸관리를 잘해 나이를 잊고 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현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용마테니스회 재창립은 총동창회 산하 직능단체의 다변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회원수 늘려 옛 명성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회원은 운동 후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13회 신민철 정덕치 두 동문과 박 회장이 찬조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30만원을 지원했다.

◇용마테니스회 회원 명단=신민철 정덕치(이상 13회) 김한원(20회) 김상현(26회) 조선 김현곤(이상 34회) 박창석 권기범 박외병(이상 35회) 조성각(37회) 김태성 이종일(이상 38회) 최하용 백성대 신정엽(이상 40회) 이상우(47회) 정상중(52회) 고강혁(53회) 박동엽(58회) △게스트-2명

등대회, 회장단 및 간사회 정기모임



등대회는 지난 4월 25일(월)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회장단 및 간사회 정기모임을 갖고 2022년도 전반적인 행사 계획을 논의했다(사진). 골프대회, 산행, 물류 세미나 등을 논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짓기로 했다.

참석자:안창홍(회장) 현응열(이상 29회·총동창회 사무총장) 노경보(33회) 오문세 이원우 채인석(이상 35회) 성귀호(36회) 박이현(38회) 안광근(41회) 장시호(43회) 정하운(47회) 강대근(48회) 정준섭(54회).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탁준길 황곤태

25회 당구회 = 정기모임



지난 5월 11일(수)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없었던 25당구회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참석자 : 김옥권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장세훈 정윤철 최차환 한봉재

28산우회 = 5월 정기산행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5월 15일 기장군 철마산(605m)과 망월산(549m)을 종주하고 왔다. 오전 9시 30분 노포역 앞에 집결한 12명의 산꾼들은 철마산과 망월산 정상에 올랐다가 정관 신도시를 향해 하산.

<기사 31면에 넘김>



명수 오성한 유홍석 이상룡 이수 이재능 이현우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현동 전대현 정영석 주점권 최동우 최명진 최우림 태창업 황성동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5월 8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해파랑길7코스)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구화 김용수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30면에서 받음>



오후 2시 10분 동래행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김태완(28테니스회 회장) 동기가 기다리고 있던 온천장 이태리 식당 우드에 집합, 배를 채운 뒤 근처 담양갈비에서 해단주를 찢하게 가졌다. 이번 산행에는 모처럼 전학명 동기가 울산에서 왕림했고, 1년여 요양하고 건강을 되찾은 김대성 산행대장이 반가운 얼굴을 보여줬다. 특히 28테니스회 김태완 회장이 산우들에게 융성한 식사 대접에 더하여 파인애플 통조림까지 선물했다. 오후 5시 해산.

참석자: 김대성 김이청 김경유 김태완 박재훈 서정환 여인남 이인재 전학명 최연옥 허남식

#### 28당구회 = 손풀이 만남



28당구회(회장 조광제)는 코로나로 격조했던 회원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5월 12일(목) 오후 7시 남천당구클럽에서 가졌다. 위밍업 차원에서 시합 없이 편안하게 2시간 가량 손을 풀었다. 인근의 남천집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날 회원과 다름없는 게스트 국승규 교수가 오랜만에 만난 기쁨으로 식사비용을 자청, 더욱 푸근한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 강용수 김명보 김양태 노영현 박영규 송재영 엄재홍 이명재 이민우 이철행 조광제 G국승규

#### 31회 = 정기총회



2022년 동기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8일(목)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52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건 토의와 심의 후 임원 개선이 있었다. 박경수 동기가 제22대 신입 회장으로, 이석우 동기가 감사로 참석 동기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었다. 김판덕 동기가 사무국장으로 지명되었다. 부회장은 김기정 김호성 남기태 박석두 신상하 이성식 장재훈 등 7명이다.

참석자: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기열 김성규 김영수 김용호 김윤택 김종호 김태근 김판덕 김학현 김호성 김효연 박경수 박세환 박종규 박홍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성오룡 안병곤 안용모 양진영 이광태 이기범 이성식 이우상 이원장 이희준 임종철 장성모 장성수 전창수 정용식 정인화 조봉우 조성제 조영기 차인용 천장호 최경침 최광수 최봉근 최상규 최재식 최주홍 최해영 최효식 하병관 허일현

## “대호야! 우승하고 은퇴하자!”

### 55회 동기회, 이대호 선수에 우정의 커피응원

“대호야! 우승하고 은퇴하자!” 55회 동기생들이 ‘조선의 4번 타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를 찾아가 우정의 응원을 했다(사진). 55회 졸업생 20여명은 지난 5월 12일 부산사직구장에 모여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친구 이대호를 축하하고 성원했다. 이들은 사직구장 내 한 카페에서 롯데 선수들과 구단 임직원에게 100여잔의 커피를 대접했다. 카페 입구에 격려의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장지훈 55회 동기회장은 “55회는 물론이고 경남고의 자랑인 대호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데 꼭 한 번 기를 살려주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 취



지를 설명했다.

이대호는 친구들을 포옹하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2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여전히 생각해주고 챙겨줘서 고맙다. 힘내서 올 시즌 끝까지 잘 하겠다”고 말했다.

## 서구용마회, 2년 만에 정기모임 개최

부산시 서구청 산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구용마회가 지난 5월 3일(화) 오후 자갈치 신동아회센터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사진). 거의 2년 만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엔 전체 회원 16명 중 11명과 최근 타지 전출 동문, 총동창회 사무국원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총동창회에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시용마회 조직과는 별도로 구청 단위 동문 조직으로는 서구용마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성한(41회) 서구용마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가는 것 같다.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고 보다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3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했다.

◇참석자=김종오(36회·고문) 배수범(38회) 윤성한(41회·회장) 김동헌(42회) 진성재(44회) 노성욱(49회) 송병우(50회·총무) 김경렬(53회) 이진산(54회) 하성근(56회) 여용직(62회) 오정환(59회·남구청 소속)

#### 31회 = 동기모임



지난 5월 15일(일) 오전 10시 금곡역에 42명의 동기가 모여 낙동강 에코트레일 18구간 중 부산 금곡역~양산 물금역(소요시간 2시간) 구간으로 그동안 그리웠던 동기들 얼굴도 보고 신록 따라 강변 걸으며 힐링을 하였다. 강바람 없는 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답소를 나누는 모습, 정말 흐뭇한 장면이었다. 진행에 헌신적으로 협조한 지역총무, 촬영감독 고영호, 차량과 얼린 생수제공 및 뒷정리한 천장호, 잠깐 들러 박카스를 제공한 김호성 동기에 감사의 인사 전한다.

참석자: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성규 김영수 김영철 김윤택 김태근 김판덕 김학현 김호성 김효연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종규 박홍배 박

암 배정우 서규영 성오룡 송재용 안중수 이기범 이민재 이석우 이원철 이희준 임종철 장재훈 정용식 정인화 조현우 천장호 최경침 최광수 최봉근 최주홍 최해영 허일현

#### 35회 = 울산 동창회 4월모임



지난 4월 8일(금) 오후 7시 천금당에서 울산 5월 모임 및 재경 환갑여행 참석의 건으로 모임을 가졌다. 5월 울산친구 여행은 가을여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재경동창회 주관 환갑여행(6월 18~19일) 장소선정에 무주와 부산 중 울산모임은 부산을 추천하였다.

참석자: 김인수 전상건 이효성 손경호 강창호 <기사 32면에 넘김>

<기사 31면에서 받음>

36회 = 임시총회



지난 4월 30일(토) 오후 5시 30분 유명한물레복집에서 동기들이 모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40주년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40회 = 정기총회 및 동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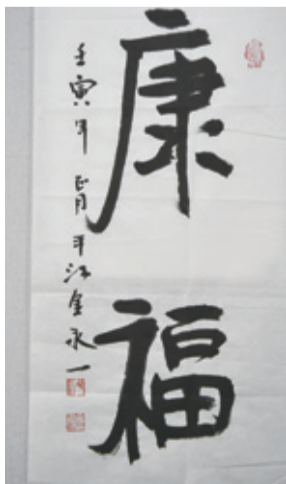
지난 5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서면 태진한우에서 2년 만에 40회 동기모임을 개최했다. 총 23명 동기들이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에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전임 박훈재 회장과 이승배 사무국장에게 감사패와 백화점 상품권(10만원) 전달 식도가졌다. 이날 참석 친구들에게 고급 우산을 선물했다. 1차에 이어 2차는 건너편에 있는 친구호프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석자 :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영진 노인철 문태영 박기엽 박훈재 배병훈 배영진 신영석 안성호 우영환 이기이병완 이승배 이정삼 이창진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정원철 한수열

41회 = 동기회 및 회장 이취임식



김영일(16회) 동문, '康福' 휘호 동문 모두의 건강과 행복 기원



모교 80년사 책자 표지글을 맡은 서예가 김영일(16회) 동문이 동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글 '康福(강복)'을 보내왔다.

지난 5월 26일(목) 사상 해운대연가(이양걸 동기 운영)에서 거의 2년 만에 동기회를 개최했다. 작년말 마무리었던 전삼록 전 동기회장과 현 김영철 동기회장의 이취임식을 겸한 동기회 모임이었다. 회장 이취임식 후 부회장단 활성화, 동기회비 및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독려, 산하 직능단체(포원야구단, 산악회) 각 30만원 지원을 확정하고, 총동창회 발전기금 및 야구후원회 기금 논의를 했다. 이 자리서 최영준 동기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참석자 : 김정태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류지섭 문상현 백창봉 안광근 이양걸 이종우 장익조 전삼록 조원호 최영준

42회 = 정기모임



지난 5월 13일(금) 사직동소재 애해야참치에서 42회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행사 1시간 전부터 곽창우 회장, 문지성 부회장 등 여러 동기들이 준비작업을 도왔다. 총 31명의 동기가 참석했다.

애해야참치 대표인 여인환 동기부회장은 최고급 참치를 썰어내는 장인의 모습을 보이며 행사 내내 심혈을 기울였다. 친구들은 이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고 우정을 나누며 한없는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곽 동기회장은 개회사에서 "본부와 재경이 함께하는 졸업 35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먼저 본부동기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다음 정모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토록 하자"고 하였다.

강인호 수석부회장은 박동식 고문(불참)의 경미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경미회 조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와인동호회 문지성 부회장과 산악동호회 고장석 대장은 6월중 모임 계획을 발표했다. 당구동호회 운영기 부회장은 당구대회 개최를 약속하였다. 이날 행사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 이벤트에서 6명이 행운을 거머쥐었다. 참석 동기에게 모자와 타월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애해야참치에서 2차 치맥이 자정까지 이어져 술잔과 의리가 무르익어갔다.

찬조 : 운영기 부회장 20만원+2차 치킨 9마리, 강인호 수석부회장 10만원, 김원주 부회장 10만원, 유경상 동기 10만원을 찬조했다. 여인환 부회장이 이날 주류와 음료를 서비스하고, 나머지 경비를 찬조했다.

42회 베이스캠프 = 정기모임



42회 와인모임인 '베이스캠프'는 지난 4월 8일(금) 와인전문바인 소이만에서 모임을 가졌다.

43회 = 5월 정기모임



지난 5월 14일(토) 오후 5시 후다담 춘천닭갈비(김민석 운영)에서 2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기나긴 코로나 터널 끝자락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 정기모임을 가졌다. 골프회, 초크회(당구모임)등 동기 소모임 활성화와 상반기 1박2일 단합대회(사전답사 후 추후일정 공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 강병규 김대영 김대훈 김동현 김민석 김수민 김영재 박경석 박승삼 심문섭 엄홍국 윤성진 이상필 이석민 이진배 이현우 전세준 전순표 정진우 정효범 최동환 황석주

45회 = 5월 정기모임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못하다 몇 년 만에 29명의 동기가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역시 동기 친구와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다 보다. 장소를 통으로 제공 해준 43회 류법권 선배께 감사드린다.

참석자 : 구자삼 권우일 김경수 김대영 김동규 김동욱 김상수 김상일 김성기 김성준 김성진 김영주 김종현 박준오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손창오 안형오 양현욱 윤한균 이광석 이동희 정행덕 조창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황귀웅

기독교동문회 = 임원모임



기독교동문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8일(월)에 하단교회(31회 김영완 목사 담임)에서 임원모임(10명 참석)을 갖고 이번 겨울 '20주년사'를 발간하기로 했다. 편찬위원장에 31회 강대석 장로를 선임하고, 향후 편찬위원들이 모여서 뜻깊은 20주년사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5월 14일(토) 임원들은 한국선교100주년 기념교회 은퇴목사인 이재철 목사(21회)를 예방하고 향후 기독교동문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 수련회를 겸한 단합행사를 가졌다.

**자율방역 실천!**  
슬기로운 일상생활의 시작입니다



### 요즘 어떻게?

<18회>

△서부원 = 차녀 지현양 6월 25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더라움 폰드가든(9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결혼.

<20회>

△이윤선 = 모친상. 4월 22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402호실에서 발인.

<24회>

△김영범 = 빙부상. 4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에서 발인. △김중섭 = 아들 의동군 4월 23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더 컨벤션 신사점 4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장성기 = 빙모상. 4월 10일 부산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402호실에서 발인. △김학성 = 모친상. 5월 21일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3층 3호실에서 발인. △양무도 = 빙부상. 5월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6호실에서 발인. △유광윤 = 모친상. 5월 23일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에서 발인. △차한영 = 아들 준호군 6월 18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결혼. △하욱 = 장녀 진경양 4월 30일(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 엘블레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결혼.

<25회>

△탁준길 = 아들 4월 9일(토) 서울 아펠가모 선릉 4층에서 결혼.

<26회>

△강영녕 = 자녀상. 4월 26일 미국에

있는 아들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 미국에서 장례. △안길효 = 모친상. 4월 25일 강동경희대학병원 장례식장 23호실에서 발인. △이종욱 = 모친상. 5월 8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발인. △장정호 = 딸 지혜양 5월 28일(토) 오후 1시 풍성한교회 선교동산에서 결혼. △최훈 = 딸 순혜양 4월 16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엘타워 8층 엘하우스에서 결혼. △홍청곤 = 딸 은경양 6월 11일(토) 오후 4시 부천 소풍컨벤션웨딩부페 라온제나홀 7층에서 결혼.

<28회>

△김대운 = 모친상. 4월 12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수영 = 부친상. 5월 2일 부산 아시아드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형진 = 장남 원규군 5월 22일(일) 오후 1시 부산 기장 힐튼호텔 G층 크루즈그랜드볼룸에서 결혼. △류승일 = 장녀 희연양 5월 14일(토) 부산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 송도 아트케이에서 결혼. △박병준 = 아들 근훈군 5월 22일(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루비스웨딩홀에서 결혼. △안풍 = 빙모상. 4월 25일 전남 산림조합 장성장례식장에서 발인. △안병직 = 부친상. 5월 2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엄호성 = 장녀 윤정양 4월 23일(토)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 H층 하모니볼룸에서 결혼. △이민우 = 장녀 보슬양 5월 28일(토) 부산 디엘웨딩홀 3층 마리아홀에서 결혼. △이정환 = 빙모상. 5월

13일(금)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대화 = 모친상. 3월 29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주종목 = 모친상. 5월 1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권오봉 = 모친상. 5월 19일 부산 대연장례식장 VIP분향소에서 발인. △김기섭 = 부친상. 4월 22일 부산 아시아드장례식장 3층 VIP실에서 발인. △김승범 = 장녀 효진양 4월 24일(일) 오후 3시 10분 울산 JW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 △은현수 = 모친상. 4월 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실에서 발인. △이상수 = 장녀 영빈양 4월 30일(토) 오후 1시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본관 23층 더스카이홀에서 결혼. △이영준 = 빙모상. 5월 6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4호실에서 발인. △이한수 = 부친상. 4월 1일 부산 행림병원장례식장 1호실에서 발인. △이호준 = 빙모상. 5월 1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서 발인. △장봉규 = 차남 호우군 5월 14일(토) 오후 3시 부산 그랜드블랑 8층 미라벨가든에서 결혼. △최윤성 = 모친상. 3월 19일 부산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실에서 발인.

<31회>

△김성수(영국) = 모친상. 5월 12일 좋은간안병원 장례식장 6호에서 발인. △김의석 = 장남 재원군 5월 1일(일) 오후 5시 해운대구 프루터리포레스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신원(7회) = 4월 30일 작고  
 △진강(10회) = 4월 12일 작고  
 △김광수(13회) = 3월 29일 작고  
 △이범열(17회) = 5월 16일 작고  
 △박민(18회) = 4월 23일 작고  
 △조용호(20회) = 4월 12일 작고  
 △이재문(24회) = 5월 6일 작고  
 △김상훈(26회) = 3월 28일 작고  
 △조해래(26회) = 5월 21일 작고

에서 결혼. △민중현 = 빙모상. 4월 28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성중경 = 부친상. 5월 6일 개금부산백병원 장례식장 102호에서 발인. △손영태 = 장녀 예원양 4월 10일(일) 낮 1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결혼. △이민재 = 모친상. 3월 30일 수영 남천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희준 = 아들 성만군 4월 2일(토) 오후 2시 서울 보타닉파크 웨딩홀에서 결혼. △최상웅 = 아들 성준군 4월 2일(토) 낮 12시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에서 결혼.

<34회>

△김두섭 = 아들 태균군 5월 21일(토) 오후 5시 제주 씨에스호텔 알드르광장에서 결혼. △이재국 = 장녀 예빈양 6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센텀사이언스파크 컨벤션홀에서 결혼.

<42회>

△김상현 = 4월 10일 김상현 동기가이끄는 수영초 야구부가 부산시 소년체전 야구대회에서 우승. △김세용 = 제12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 이용흠(19회) 고문, '건축과 인생' 출간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설계사사무소 일신설계 회장인 이용흠(19회·사진) 총동창회 고문이 45년 건축설계 한길을 걸으며 남긴 기록들과 삶의 단상을 엮어 '건축과 인생'(해바라기미디어 간)을 출간했다.

'건축과 인생'은 일신설계 사보와 이 동문이 발행인으로 있는 건축 전문잡지 '이상건축'의 권두언,

신문과 잡지에 쓴 칼럼 등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주요 건축물의 설계 배경과 과정, 지역 건축이 나아가길과 방향 등을 다뤄 기록 자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이 동문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 건축물, 부산시청사, 벅스코(Bexco), 해운대 누리마루 하우스, 더베이(The Bay) 101, 부산시립미술관 등의 설계 작업을 주도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들어설 오페라하우스도 그렇다. 이 동문의 심미안과 예술적 감

각, 섬세함과 통섭(通涉) 능력, 집중력과 집념, 그리고 리더십의 융합이 이 같은 건축사적인 업적을 낳게 했다.

이 동문은 현재 (사)한일터널연구회 이사장과 총무공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교육하는 (사)부산연해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 5월 12일 오후 해운대 더베이 101 갤러리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오용환(31회) 동문, '제주시 용마횃집 개업'



예전에 광안리에서 용마횃집을 경영했던 오용환(31회·사진) 동문이 제주에서 용마횃집을 다시 차렸다. 2018년 6월 동

기생인 김대식 동문에게 횃집 경영권을 넘기고 창원에서 한동안 골프사업을 하다 6년 만에 야심차게 '부산의 칼맛'을 갖고 제주도에 진입했다. 오 동문은 제주도를 찾는 동문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많은 방문을 요청했다.

## 조일제(26회) 동문, '고희 기념문집 출간'



조일제(26회·부산대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동문이 고희 및 손자 돌 기념문집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세대는 이어지며'(도서출판 일월성 간)를 출간했다.

책 제목에서 보듯 자신과 아들 영래

씨, 그리고 손자 현성 군으로 이어지는 3대(代)가 절대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한마음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책에 담겨 있다. 고희라는 인생의 중요한 절기가 출판의 계기가 되었다.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조 동문은 지난 세월 동안 다양한 인연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쓴

글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번에 책으로 엮었다. 아들과 아내에게 쓴 글, 주례사, 교수 및 친구 등에 보낸 서신, 국제교류교육원 원장 시 쓴 축사, 신문 기고 등이 수록돼 있다.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가꿔온 조 동문의 인생이 녹아 있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440호 6, 7면 '2022 총동창회 조직표' 중 기수동기회에서 '13회 회장 (공석)'은 '13회 회장 최태환'으로, 동호회에서 용마산악회 회장 '33회 서석권'은 '35회 서석권'으로 바로 잡습니다.

# 2022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1,881명> (2022. 5. 25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욱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 11회 김광석 2024년, 이균우 2023년, 이세영 2025년
- 13회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이창열 2023년
- 14회 박남조 2026년, 이효근 2024년
- 15회 손부흥 2031년
- 16회 민신웅 2023년

- 18회 홍우재 2024년
- 21회 육화원 2023년
- 23회 박재호 2028년
- 24회 구자웅 2023년
- 25회 박명우 2024년, 임창운 2051년
- 26회 이상원 2030년
- 28회 구영소 박종기 2024년, 이종만 2023년, 하재근 2028년
- 29회 황유명 2023년

-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변윤수 서강태 2023년, 신교선 2025년
- 32회 최준호 2024년
- 33회 최웅남 2030년
- 34회 박철웅 2023년
- 36회 김관용 2026년
- 37회 서동욱 2024년, 최기영 2025년, 허부남 2026년
- 38회 권두성 2029년, 김언규 2024년

- 40회 박훈재 2025년, 문형욱 2023년
- 43회 최용석 2023년
- 45회 박중호 2023년
- 48회 김춘호 2023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 53회 황종민 2023년
- 54회 엄도용 2024년
- 69회 정민기 2023년

3회(4명) 송두호 윤태운 이안규 하덕모

4회(4명)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8명)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상기중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6회(10명) 강동숙 배종권 변영수 손윤수 유상환 이희문 경건용 경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2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박한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하근수

8회(13명) 김봉길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엄덕량 이종택 이준현 이춘기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1명) 김기관 김 청 박영복 서해량 신옥의 윤일명 안규현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10회(22명) 강희운 김상구 김선동 김평순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윤수 이재순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중만 조길수 조상진 진 강 최병도

11회(43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삼진 김성구 김옥실 김용만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근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서자운 심재용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이강우 이재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성욱 최창욱

12회(50명) 강본순 강수현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명희 김봉하 김부환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중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상현 이승태 이원우 이현달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시전 정호중 조경계 조한기 조홍래 최경균 허은도 홍두표

13회(76명) 강중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삼치 김신득 김형호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덕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경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철세 이태랑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원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44명) 강주신 권 명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창홍 배중현 손영목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명재 이수남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조규향 진성태 최낙섭 최성웅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15회(49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염훈 김옥규 김완식 김종태 김종한 김중광 김홍식 김편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성훈 배 훈 손부흥 신용기 오봉석 윤상준 윤휘정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중호 천신일 최광웅 최병우 최 욱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중부

16회(61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영 김박일 김영일 김 조 김종덕 김충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용일 박중봉 박 훈 설희순 성기식 손승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예광해 오형철 윤효주 이영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방수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철원 임승언 정우광 정일성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수열 한일량 배정희 황규호 권명석 김영우 김상호 여성국 조원제 조길우 김정호 김창희 김일규 박두영 정대성

17회(46명)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동수 김상천 김용식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희식 서정승 송우근 송인문 송인창 신희규 안국정 양성일 여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장길성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최성호 하영수 허진형

18회(55명)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용 김귀연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계창 김철철 김지호 류종우 문재빈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준성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손부열 손찬규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공희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허만조 홍우재 황광건

19회(64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탁 김영태 김재근 김경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선우일남 성한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우 이상달 이상환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춘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정규병 정승식 정태을 조성환 진수상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황태경 황태원

20회(36명) 강부덕 강석근 김성룡 김세준 김영철 김형오 김화식 남기석 목일진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백완규 백창열 손춘수 심두수 윤우성 임세호 전일준 정승창 조영철 조문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장하 허남균 문성채 김일석 배준태 신원기 유근준 이영오 최상인 정세현 박지오

21회(68명)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영삼 김유건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신태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익희 오태규 육화원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준석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22회(55명) 고인준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성재 김세곤 김승구 김원진 김일봉 김일준 김재근 김학균 김해현 노평호 박규모 박승목 박연표 박재상 박창섭 박홍조 배병환 배준식 변대석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윤 유인조 이경상 이민성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학봉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23회(58명)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익근 김정록 김주찬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명욱 박기홍 박동현 박재호 배준순 배준석 배승찬 백창영 서승환 송영춘 송충송 신경재 신언국 안경섭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이기호 이덕남 이병찬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일원 이정욱 이준석 이흥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24회(76명) 강동우 강용중 광두희 구분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학성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규제 박찬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경득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 수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영태 이재능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운 정명근 정영석 정용호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한영 최동우 최원주 최현규 태창업 하재갑 한상열 허규연 황성동 황성훈

25회(96명) 고명식 구도근 김건우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민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정학 김종국 김종현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도재문 박경립 박공용 박명우 박병철 박세철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예중복 오양도 옥동훈 오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태석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상웅 이인규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홍성 임창운 장대락 장세훈 전섭태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계 좌상봉 주재걸 최차호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경 허영형 허 택 황호선

26회(64명) 강수남 강영년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영섭 김원정 김일광 김재용 김경무 김경원 김종우 김주병 김채영 김태년 김 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원삼 박의영 박장현 박재욱 성백은 성재업 손영수 손우호 심승택 왕호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원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우상 이정근 이주형 이희준 임철호 장만옥 정영린 정익고 정재영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황광수

27회(44명) 강태영 광대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중욱 김중하 김진명 김희희 김호균 문두찬 박규욱 박춘규 배호택 변재국 서기룡 신현원 오봉인 윤종락 이민부 이상덕 이요섭 이종경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석 정재호 조보관 조용수 최인성 한상훈 한수길

28회(68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창준 김홍국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윤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영희 이용남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흥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허남식 황장두

29회(61명) 강대욱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 영 김영훈 김인술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철우 김태완 문명환 문창건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훈 박명섭 박봉규 박상길 박인평 박창연 박희규 백성욱

사공운근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신현수 안청홍  
윤석희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정운  
이진욱 임상훈 장현경 전장화 정 길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문성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맹근  
황유명

**30회(64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재일 김진영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문강호  
박규원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석국 박정태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신교선 신구관 신윤원 심풍수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상성 이용우  
이원욱 이종욱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환기  
인준승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욱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52명)**  
곽충철 권해철 김광수 김시현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A 김태근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박경수 박석두 박인정  
박준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우교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종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호규  
옥치호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용식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최부영 최상욱 최인묵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홍성수

**32회(27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민길식 박성철 박우상 박원곤 박종구  
신국선 양문성 엄효선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환용 임재균 정영철  
정윤운 정의주 최춘호

**33회(44명)**  
고창성 김기산 김태현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철  
김태훈 김혁 남경태 박근보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종 배성수 백수현 서재영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오향선 이도근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규 이형근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용남  
최환호 황경원

**34회(25명)**  
강승기 곽수근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옥재명 윤성부 이강희 이상운 이성엽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35회(21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우경 나동욱 류인수  
박동렬 백현성 서석권 성규원 손재수 안중엽  
안종일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42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경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박승근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성호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롬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창규 제갈재환 최재혁 한형식

**37회(30명)**  
강태우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의렬  
김중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유숙섭 윤태현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최기영 최재형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30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연규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정만 이양배 이창호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한민득

**39회(41명)**  
곽기영 김대중 김병기 김용태 김윤홍 김정남  
김중엽 김천술 김형보 남호찬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백기현 송영호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태 이승기 이영수 이종욱  
이준영 장민훈 장영욱 장윤희 정순환 정의창  
정진해 천용준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40회(19명)**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춘강 문형욱 박무성  
박훈재 배병훈 서정민 심철옥진형 우영환  
이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임태영 장명재  
최치연

**41회(25명)**  
강병오 강석희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경의 성찬기  
안광근 윤성보 윤성하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윤희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한정호  
허중윤

**42회(20명)**  
강인호 고장석 곽창우 김동수 김순곤 김원주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기열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안정일 윤영기 이영도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43회(14명)**  
강병규 구명진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문영찬 박경곤 이상현 이성훈 이진배 정효범  
최동환 최용석

**44회(13명)**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윤철홍 이동렬 이승철 이창용 조영호  
황인주

**45회(40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용성 김중현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현호 박 웅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왕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정상희  
정종훈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6명)**  
권성기 김동희 문용성 배동석 이재광 한영길

**47회(8명)**  
감기환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배준수 이승택  
정민호 정 신

**48회(8명)**  
권태현 김정훈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근  
이동재 차원일

**49회(5명)**  
신종국 이충현 조영철 최유단 최진영

**50회(20명)**  
강봉규 강 철 구원모 김동현 김석훈 김유진  
김정현 남경협 박종현 백승현 안기범 윤종선  
이상준 장태호 전세계 정재우 정희석 최용호  
하진일 황현우

**51회(11명)**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형태 박보순 반길호  
신혁우 신현식 유상일 이 덕 최우영

**52회(21명)**  
강영철 김민수 김민철 김지운 김현진 박상현  
박선중 백선명 변익현 유중갑 이경원 이도경  
이형채 임치훈 장태원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7명)**  
강덕천 문희규 백홍상 송승윤 이원준 한동인  
황종민

**54회(7명)**  
강치범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조중완

**55회(67명)**  
강경동 강문성 고윤성 권세호 김대성 김대진  
김동현 김민성 김경현 김태런 김태현 김팔경  
김현달 김현중 김형식 박기홍 박다니엘 박두  
근 박신현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변주환 서  
진우 신민걸 안준형 양세동 윤승환 이대호  
이도경 이동규 이동욱 이동주 이동현 이문원  
이영훈 이욱한 이종원 이해민 이항림 임인철  
장 민 장범후 장지훈 장현준 전대근 전민기  
정균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제갈문 조윤호  
조재영 조중호 조현민 최범준 최상국 최성원  
최유성 최익제 최 혼 하치수 한재호 허 준  
황보영 황시우

**69회(13명)**  
권성민 김덕형 김민규 김성수 김시준 김현윤  
유영재 이명휘 이정조 전명재 정민기 홍경민  
황유광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명

**2022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2년 5월 25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7	36	54%	39	68	41	60%
2	0	0	0%	21	106	68	64%	40	50	19	38%
3	5	4	80%	22	96	55	57%	41	60	25	42%
4	6	4	67%	23	95	58	61%	42	39	20	51%
5	11	8	73%	24	118	76	64%	43	71	14	20%
6	20	10	50%	25	192	96	50%	44	50	13	26%
7	21	12	57%	26	109	64	59%	45	55	40	73%
8	23	13	57%	27	81	44	54%	46	38	6	16%
9	24	11	46%	28	90	68	76%	47	37	8	22%
10	43	22	51%	29	117	61	52%	48	12	8	67%
11	61	43	70%	30	115	64	56%	49	33	5	15%
12	75	50	67%	31	90	52	58%	50	57	20	35%
13	91	76	84%	32	51	27	53%	51	106	11	10%
14	68	44	65%	33	64	44	69%	52	135	21	16%
15	75	49	65%	34	38	25	66%	53	43	7	16%
16	82	61	74%	35	55	21	38%	54	90	7	8%
17	61	46	75%	36	66	42	64%	55	73	67	92%
18	92	55	60%	37	43	30	70%	56	11	0	0%
19	100	64	64%	38	51	30	59%	57이후	35	13	37%
Sub-total(1)		572명		Sub-total(2)		961명		Sub-total(3)		345명	
<b>미상</b>		<b>3명</b>		<b>목표인원</b>		<b>4,000명</b>		<b>구독료납부인원</b>		<b>1,881명</b>	
<b>총발송부수</b>		<b>3,565명</b>									



**황금사자기 우승 '명문' 자부심**  
**모교사랑기금 기부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동창회보 광고 게재로**  
**이어나갈 바랍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제주**

# 용마횃집

모듬회

2인 70,000    3인 100,000    4인 130,000

최고의 맛과 최고의 서비스



#제주공항맛집 #최고의회식감 #바다전망  
#일몰맛집 #비행기랜딩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산 광안리에서 용마횃집 운영했던  
31회 오용환입니다.

이번에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제주공항 옆 용두암 쪽에  
바다전망이 좋은 "제주 용마횃집" 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낮선 곳 제주에서 횃집 고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이제 경남고 31회 동문이 운영하는 "용마횃집"이 있으니  
안심하고 들려주십시오!

편안한 가격대와 신선한 회로  
동문여러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고급회도 바가지 쓰지 않고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표 오용환 (31회)

예약문의

제주시 서해안로660 (공항 옆 용두암 해변가)  
T.064)745-5030 M.010-3574-5030

